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미술교육에 있어서 미술표현활동의
통합적 지도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문 보 경

2012 년 2 월

미술교육에 있어서 미술표현활동의 통합적 지도 방안 연구

지도교수 강 동 언

문 보 경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 년 2 월

문보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년 2 월

Integrated Instruction Plan of Art Activity
on Art Education

Bo-kyoung Moon

(Supervised by Professor Dong-eon K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2.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Dong-eon Kang, Prof. of Art Education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미술교육에 있어서 미술표현활동의 통합적 지도 방안 연구

문 보 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강 동 언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지식이 축적되고 세분화·전문화 되어가고 있지만 그 반면, 환경문제, 인종문제 등과 같이 세분화된 학문적인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교과내용의 새로운 다양성이 요구되면서 통합교육과정이 대두되었고 교육현장에서는 타 교과목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와 입시위주의 수업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

전문화·세분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미술교육 또한 표현 중심의 단편적인 실기수업과 입시위주의 정형화된 수업으로 현대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채 교육정책에서 정규교과에 그 비중이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술교육의 새로운 통합적 지도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술교육과 통합교육과정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하여 제7차 교육과정과 문헌 연구를 통하여 각각의 당위성을 찾고 그에 따른 미술과 통합교육에 대한 기대효과를 정리하였다.

첫째, 인지구조의 형성을 도와 학습의 이해도를 높여준다.

둘째, 창의력의 계발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킨다.

셋째, 자기표현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자아 존중감의 형성을 돕는다.

넷째, 협동심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준다.

다섯째, 감상교육을 통한 정서성의 함양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화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미술과와 국어과, 미술과와 과학과의 미술표현활동의 통

합적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술과와 국어과의 통합 수업의 경우는 미술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은 S고등학교 1학년의 한 학급 28명을, 미술과와 과학과의 통합 수업의 경우는 A중학교 2학년 한 학급 28명을 대상으로 하여 통합 수업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활동을 통한 수업은 주입식의 주지교과 수업과 달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추상적인 언어적 학습에서부터 구체적인 행동적 학습까지 각각의 수준별 학생들에 맞는 개별학습이 이루어져 학습의 이해도를 높였다.

둘째, 단편적인 지식의 전달에서 벗어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음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주어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에 효과를 보였다.

셋째, 주지교과 성적이 부진하여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결과의 평가에서 벗어난 조별 수업은 학생들 사이에 협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넷째, 실생활과 타 교과목의 연관된 주제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결능력을 길러주었다. 끝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교육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충족하는 전인적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미술표현활동을 중심으로 한 미술교과의 통합적 지도 방안을 구안함으로써 미술교육에 대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더불어 통합교육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부응하는 학교교육의 풍토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 본 논문은 2012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미술교육의 이해	3
2. 통합교육과정의 이해	14
3. 미술과와 타 교과와의 통합교육과정의 기대 효과	29
III. 통합적 지도의 실제	31
1. 국어과 통합 지도의 실제	31
2. 과학과 통합 지도의 실제	46
IV. 결론	62
참고문헌	64
<Abstract>	66

표 목 차

<표 1> 자기표현과 모방의 차이점	7
<표 2> 좌·우 뇌수 기능의 차	9
<표 3> 통합 유형의 특징	28
<표 4> 미술과와 국어과의 통합적 단원 분석	34
<표 5> 미술과와 국어과의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38
<표 6> 미술과와 국어과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40
<표 7> 미술과와 국어과 통합수업의 PPT 자료	41
<표 8> 「‘미얄춤’ 공연포스터」의 학생작품	42
<표 9> 미술과와 국어과 통합수업의 설문 결과	43
<표 10> 미술과와 과학과의 통합적 단원 분석	49
<표 11> 미술과와 과학과의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54
<표 12> 미술과와 과학과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56
<표 13> 미술과와 과학과 통합수업의 PPT 자료	57
<표 14> 「마블링 기법」의 학생작품	58
<표 15> 미술과와 과학과 통합수업의 설문 결과	59

그 립 목 차

<그림 1> 미술과 목표 체계표	5
<그림 2> 교육과정 통합의 유형 분류	19
<그림 3> 교과중심 조직유형	20
<그림 4> 경험중심 조직유형	22
<그림 5> 학문중심 조직유형	23
<그림 6> 인간중심 조직유형	24
<그림 7> 통합의 연속체	25

<그림 8> 다학문적 교육과정과 간학문적 교육과정의 도식	26
<그림 9> 미술과와 국어과의 단원 분석	33
<그림 10> 미술과와 국어과의 통합적 교수-학습 계획	36
<그림 11> 미술과와 과학과의 단원 분석	48
<그림 12> 미술과와 과학과의 통합적 교수-학습 계획	51

I. 서 론

오늘날 사회는 지식이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지식의 양 또한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의 증가는 학교에서 다루기 힘들만큼 지식의 분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전체적인 안목을 갖게 한다는 전인적 교육의 목적 달성에 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맞추어 학생들에게 1교과의 단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통합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교육과정은 복잡하고 다원화된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기르고 궁극적으로 전인교육을 실현하려는 의도로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통합교육과정은 제 4차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제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중·고등학교의 학교재량시간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재량권을 교사가 갖게 되어 통합교육과정의 토대는 마련되었으나 교사에게 추가업무에 대한 부담이 클 뿐 아니라, 학교와 교과 차원에서 계획된 교육과정과 마찰이 생기는 것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교과 간의 통합이 교과의 수를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나 같은 계열의 교과에서만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전인적 교육의 실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미술교과 또한 표현 중심의 실기수업에 치중하고 입시위주의 교과목 선호로 인해 정규교과에서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미술교과와 타 교과의 통합을 통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미술과의 통합교육과정은 주지교과와 예술교과의 균형 있는 교육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부족한 정서 교육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술교과와 타 교과의 통합은 많은 논문 주제로 연구되어 왔으나 대부분이 감상 영역을 중심으로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감상 영역은 조형적인 표현 활동이 배재되어 있어 실질적인 미술활동의 통합이라고 보기 힘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과와 수와 기존의 교육과정운영에 혼동을 주지 않으며 다른 계열 간의 통합을 통하여 전인적 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는 미술과의 표현활동을 통한 통합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통합 방법은 미술과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술표현활동은 먼저 학습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사가 이끌기 보다는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기에 적합하며 다양한 기법과 재료의 활용은 학생들의 동기와 호기심을 자극하고 시각적인 자기표현은 창의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연구방법으로는 제 7차 교육과정의 교과별 성격과 목표를 중심으로 미술교과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교육적 필요성을 살펴보고, 통합교육과정의 개념과 필요성, 기능과 유형에 대한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타 교과와 미술과의 통합교육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과와 국어과의 통합수업,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과와 과학과의 통합수업을 구안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대상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으로 제한하며 기존 교육과정에 시범적으로 미술교과를 통합 지도하는, 팀티칭 수업으로 1차시의 결과물만을 제시하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갖는다.

둘째, 미술교과의 영역인 미적체험, 표현, 감상 중 표현 단원을 중심으로 지도안을 작성하여 영역을 제한하였다.

셋째, 통합교과에 있어 국어와 과학의 두 과목으로 한정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미술과와 국어과의 통합교육은 언어적 표현과 시각적 표현을 아우르는 자기표현활동에 중점을 두고, 미술과와 과학과의 통합수업은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리를 응용한 미술표현 기법을 학습함으로써 창의성을 계발하는데 중점을 두어 과정안을 구안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미술교육의 이해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시대에 부응하는 미술교육의 의미 또한 변화하는 과정을 갖는다. 전통적 의미의 미술교육에서부터 현대의 이해중심의 미술교육에 이르기까지, 변화에 따른 미술교육의 개념을 정리하고 미술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1) 미술교육의 개념

전통적 의미의 미술교육은 표현기능 중심의 미술교육으로 미술을 가르쳐 표현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미술가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는 ‘미술의 교육(education of art)’을 의미한다. 미술이 중심이 되는 미술의 교육은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학생들이 미술이라는 고정된 틀 속에 접근하는 소극적·수동적 입장에서 학생이 주체가 되고 미술이 수단이 되는 ‘미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으로 바뀌었다.

미술을 통한 교육은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주안점을 미술작품의 제작이나 그것을 위한 표현기능이 아니라, 미술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창의성을 계발하여 나아가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¹⁾을 하는데 두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 중심의 미술교육으로 일컬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교사중심의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중심이 옮겨지게 되었으며 미술의 기법만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미술교육에서 학습자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수업형태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세계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술교육의 이해와 감상교육을 강조하는 이해 중심 미술교육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실

1) 한국미술교육학회(2003),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 학지사, pp.160~161.

기 중심의 미술교육이 표현영역에 한정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교육이라는 새로운 미술교육의 분야가 강조되었다.

이해 중심 미술교육은 “미술교육을 통하여 현대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학생들의 표현 활동 뿐만 아니라 이해와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이 직면하게 될 다양한 문화”²⁾에 대해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미술교육을 하나의 학문으로 독립시키며, 문화교육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미술의 이해를 통해 우리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포용력을 기르는데 밑바탕이 된다.

사회의 변화에 따른 미술교육의 개념은 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표현중심에서 이해중심으로 그 형태와 성격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바탕으로 미술교육의 개념을 정리하면, 미술교육은 시각적, 공간적, 조형적인 자기표현을 통하여 창의성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현대의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하며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문화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술교육은 이해중심의 미술교육으로 변화하면서 학교 안에서의 미술교육에서 벗어나 사회와 자연,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체험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의 장이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미술교육의 의미 또한 교과외 형태를 취하지 않는 폭넓은 교육으로서 학교교육 이외의 사회교육, 즉 박물관, 미술관, 사회문화단체 등에서 실시되는 일련의 포괄적 미술교육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미술교육”³⁾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포괄적 미술교육으로서의 의미는 학교와 학생, 사회를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의 미적체험활동의 장을 학교에서 사회로 확장하여 실생활 속에서 미적 대상을 찾아 그 대상의 가치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미술교육을 의미한다.

이렇듯 미술교육의 개념은 사회의 의식과 변화에 따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사회가 예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기에 미술교육 역시 더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에 대

2)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2003), 「미술교육 이론의 탐색」, 예경, pp.283~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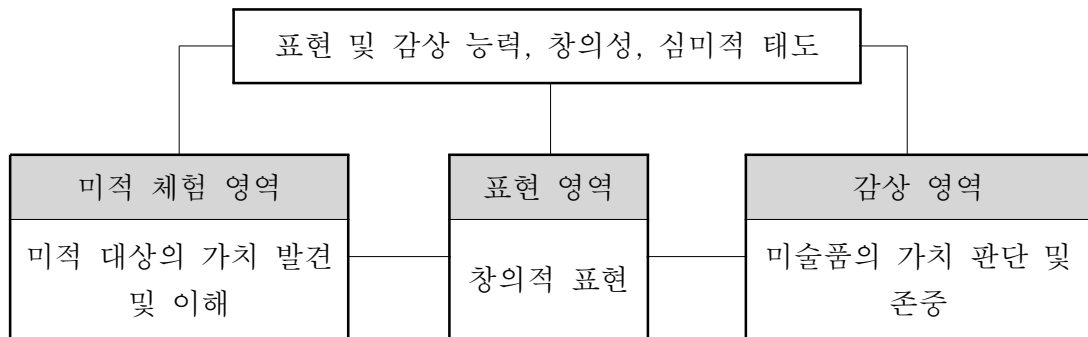
3) 임정기 외 2인(2006),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p.18.

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다.

2) 미술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정·의가 조화된 바람직한 인간형성에 있으며 미술교육 또한 교육에 근본을 두고 있기에 미술교육의 목적 또한 미술을 통한 조화로운 인격형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 미술이 출발하고 또 만나는 구심점은 ‘인간의 인간화’이며 이것이 바로 미술교육이 성립될 수 있는 기반이다.”⁴⁾ 즉, 미술교육 또한 교육적 목적인 지·정·의가 조화된 인간형성을 바탕으로 두고 실현되어야 한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미술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⁵⁾고 미술과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미술과 목표 체계표

본 절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고시하고 있는 <그림 1>의 영역을 근거로 미적체험영역, 표현영역, 감상영역으로 나누어 미술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4) 김춘일(1986), 「미술교육론」, 홍성사, p.137.

5) 교육부(1998),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 미적 체험 영역

미적 체험 영역은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미적 체험이란, “미적 가치를 가지는 대상과의 만남 혹은 미적 가치의 체험으로 정의할 수 있다.”⁶⁾ 미적 대상과의 만남 즉,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미적 안목을 길러 심미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안목이란, 사물을 분별하는 힘을 말하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서 작용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미적 안목이란 미적으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의식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적 안목은 자신의 전체를 표현하는 자기표현을 통해서, 시지각의 육성을 통해서, 우뇌의 계발을 통해서, 미술로 자유로움 속에서 질서를 추구하고 개성과 창의성을 계발하면서, 즐거움 속에서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이해하면서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서서히 육성”⁷⁾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은 미술과 교육을 접목한 다양한 통합교육의 접근을 통하여 미적 안목의 계발이 필요하다.

미적안목의 계발을 위한 방안 중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은 언어적, 음악적, 시각적, 행동적 방법 등 다양하다. 그 중 미술을 통한 자기표현이 학생들에게 주는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미술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반영하는 것은 형식적인 틀이 없고 정답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지교과에서 다루는 언어적 표현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언어적 표현이 서툰 학생들은 다양한 시각적 표현으로 상실감을 줄이고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다.

둘째, 미술을 통해 내적 성장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을 표현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성장과정을 관찰할 수 있어 올바른 자아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포트폴리오가 된다.

셋째, 미술을 통한 의사소통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출하여 상대방에게 전

6) 김동익(1989), 「세계미술용어사전」, (주)중앙일보사, p.152.

7) 전성수(2006), 「교과교육학&미술교육학」, 한국학술정보(주), p.169.

달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표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한 타인의 작품 감상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어 성숙된 인격을 지니게 된다.

로웬펠드(Lowenfeld)⁸⁾는 <표 1>과 같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자기표현은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표현함으로써 독립적인 사고에 자신감을 갖게 되며, 어떤 정서적·지적인 문제도 직접 대면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⁹⁾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해온 학생은 어려움 없이 새로운 상황에 대면할 수 있다. 반면에 모방에 의한 표현활동은 모방대상에 의존하게 되며 새로운 상황에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여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교육에 있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표현이나 묘사 중심의 교육은 미술에 소질이 월등히 높은 학생에게는 흥미를 줄 수 있으나 그 나름의 한계가 있으며, 미술에 소질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좌절감과 거부감을 갖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

<표 1> 자기표현과 모방의 차이점

자기표현	모방
어린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표현	수준에 맞지 않는 표현
독립적인 사고	의존적인 사고
정서적인 배출구	좌절감
자유와 융통성	억압과 제한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적응함	도식을 발달시킴
발전, 성취, 결단성	다른 사람에 의한 학습, 의존성, 완고성

※ 출처: 로웬펠드, 브리테인 (1993),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p.48.

8) 로웬펠드(Viktor Lowenfeld, 1903~60): 서구미술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미술교육학자로서 심리학자 겸 화가이기도 하다. 그는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미술교육이론을 정립하였다.

9) 로웬펠드, 브리테인 (1993),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p.48.

자기표현뿐만 아니라 시지각의 육성을 통해 미적 안목을 계발하는데 미술교육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시지각이란 “눈을 통해서 사물을 인지하고 인지한 대상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인간 나름의 독특한 지각을 말한다.”¹⁰⁾ 대부분의 학습이 이러한 시지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¹¹⁾ 수업현장에서 시각적 자료의 활용을 통하여 학생들의 동기를 효과적으로 유발하고 학습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수단일 뿐 미적 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사고와 공간적 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미술의 표현활동이 접목되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역사 시간에 유물에 대한 자료를 화면을 통해 학습하는 활동은 시지각을 활용한 수업이지만, 유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적 안목을 높이는 데는 유물을 직접 만들어 보는 조형적인 표현활동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미술표현활동에 그치기보다 감상활동을 통한 미적 안목의 계발은 실생활에서 사물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미술과 교육을 접목한 다양한 접근을 통한 좌·우뇌의 균형 잡힌 발달은 미적 안목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람의 뇌수의 좌·우의 기능은 서로 다르며, 좌·우뇌는 각기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좌·우 뇌수 사이에 하등 학습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뇌는 각각의 뇌수에 맞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발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2>는 우리 뇌의 좌·우 뇌수 기능의 차를 표로 작성한 것이다. 각각의 기능을 살펴보면, 좌뇌의 경우 합리적, 분석적, 객관적 특성을 띠고 있으며 우뇌의 경우는 직관적, 종합적, 주관적 특성을 보여 서로 상반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좌뇌는 실생활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는 읽기, 말하기, 쓰기 등과 관련하며, 우뇌는 주관적인 표현활동과 창의성 신장에 관련된 기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김동철(2006), 「N세대의 미술교육」, 집문당, p.25.

11) Gesell과 Gethmann은 인간 학습의 약 80%는 시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Telford와 Sawrey가 일반 학습에서의 교육적 경험은 85%가 시각에 의해 일어난다고 지적하였다.-이규선 외 5인(2000)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p.27.

<표 2> 좌·우 뇌수 기능의 차

좌	우
합리적, 논리적, 이지적	직관적
수렴적 사고 과정	확산적, 창조적 사고
연역적	상상적
분석적, 구별적	종합적, 관련적, 전체적
선적, 순차적	면적, 비순차적
역사적, 시간적	비시간적, 공간적
객관적	주관적
언어적	비언어적
일반적	개성적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꿈, 상징, 율동, 음악, 시
즉각적	영구적

※ 출처: 김춘일(1986), 「미술교육론」, 흥성사, p.13.

<표 2>와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관련지어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과가 좌뇌 성향을 띄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국어나 외국어 계통의 교과가 언어적인 것이고, 수학 계통의 교과가 수리적이며, 과학 계통의 교과가 논리적, 분석적인 성격을 갖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교과가 주로 좌뇌와 관련”¹²⁾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예체능 교과는 비언어적이며 공간적, 주관적인 성격을 갖는 우뇌의 성향이 강하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예체능의 비중보다 주지교과의 비중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주지교과의 성적에 따라 전체 성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이 좌뇌 기능 중심으로 구성되어 우뇌 기능이 우세한 학생들에게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주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물론 모든 교과들을 한쪽 뇌의 기능만이 작용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골고루 계발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미술교육도 우뇌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좌뇌의 기능도 작용하고 있으나 그 비중에 있어 현격한 차이

12) 이규선 외 5인(2000),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pp.26~27.

를 보이므로 서로 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뇌의 균형 있는 발달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학 공부를 할 때 공식과 방정식을 색으로 크게 쓰거나 색으로 숫자를 쓰고 그림이 가득한 달력을 만들게 해서 시간을 지키게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뇌의 균형 있는 발달은 균형 있는 사고를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조화로운 인간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미술교육을 통한 자기표현활동과 시지각의 육성, 그리고 우뇌의 계발은 미적 안목을 육성하여 미적 대상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향상 시킴으로서 폭 넓은 삶을 향유할 수 있다.

(2) 표현 영역

표현 영역은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창의성이란 창의적 과정에 거쳐 새롭고 유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산출물을 생성하는 능력”¹³⁾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것은 경험의 재생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문제해결의 방법과 태도를 말하고, 생산적 사고나 확산적 사고에 의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산출이나 새로운 유형의 사고능력을 말하기도 한다.

길포드(Guildford)는 창의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감수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재구성 능력, 종합능력 및 분석력, 개념구조의 복잡성, 평가능력 여덟 가지를 들었다. 이 중 창의성의 핵심인 감수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에 대한 길포드의 정의를 정리하였다.

첫째, 감수성은 주어진 재료나 상황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독특하고 적절한 고도의 인식을 말한다. 둘째, 유창성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고 신속하고 자유롭게 사고하는 능력을 말한다. 셋째, 융통성은 유창성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데 새로운 상황에 대한 폭 넓은 대응작용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미술작품의 제작과정에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작품을 만드는 작업을 통하여 단련될 수 있는 능력이다. 넷째, 독창성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만한 고유의 능력으로 학생들 마다 통일되거나 모방되지 않은 작품의 제작과정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표현해내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도되어 지는 능력이다.¹⁴⁾

13) 조영순 외 2인(2008), 「창의성 교육」,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21.

14) 고경화(2003), 「예술교육의 역사와 이론」, 학지사, pp.36~39.

이러한 창의성은 자유로운 자기 표현활동에서 저절로 계발되기 보다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에 의해 발달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교과에서라도 창의성 계발을 위한 방법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미술교과의 장점은 그 교과적 특수성 때문에 보다 다양한 방법적인 면을 갖는다는 것이다.

“미술교과는 다른 교과와 같이 보편성이나 일반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창조성과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른 교과는 대부분 가르쳐야 할 내용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고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지만, 미술교과는 일반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추출하기 어렵고 일반적 사실의 전달이나 이해보다는 개성적 표현이나 창의성” 15)을 강조한다. 또한 미술교육을 통한 자아표현은 공간적, 시각적 사고와 다양한 재료와 표현 기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타 교과에서 접하기 힘든 영역의 생산적이고 확산적 사고를 통해 창의성 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한 공간적, 시각적 표현, 다시 말해 조형 활동은 미술교과만이 갖는 특징으로 미술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덧붙여 미술의 특성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하나는 미술의 형식 즉, 조형성이고 다른 하나는 미술의 표현 즉, 창조이며 다음의 것은 미술의 감상 즉, 가치이다. 이 중에서 조형성은 미술만이 갖는 질서로서의 특성이며 창조와 가치는 예술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특성” 16)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술교육의 특성은 일선학교에서의 학급구조의 경직성, 교사-학생 간의 형식적 권위관계,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과정 등의 창의성 계발의 저해요인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교육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제약 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이 아닌 교사와 학생의 쌍방향의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중심의 개별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감상 영역

감상 영역은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15) 전성수(2006), 「교과교육학&미술교육학」, 한국학술정보(주), p.147.

16) 김재복(1979), 「미술과의 수업과 평가」, 일진사, p.17.

“예술작품을 형식과 내용으로 나누어 보면 작품의 형과 색, 그리고 재료와 기술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시각적인 것을 ‘형식’ 이라 하고 소재를 자료로 하여 나타나는 주제가 담고 있는 것을 ‘내용’ 이라 할 수 있다. 감상은 이러한 예술작품의 감각적인 형식과 정신적인 내용을 맛보고 즐기는 미적 체험 활동” 17)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감상은 인지적인 성격과 감성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감상 교육이 단순히 작품을 즐기거나 이해하는 단편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감성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 교육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감성적 활동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감상자의 내면을 감동시켜 새로운 자기표현의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창의성 신장에 도움을 준다.

또한 현대에 와서는 감상 대상의 확대로 감상을 통한 미술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예술품에 한정되어 있던 감상활동에서 시각 미디어, 영상, 설치 미술 등과 같이 미술관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영상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지각됨으로서 비판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매혹하여 생활과 의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시각 미디어에 대한 감상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시각 미디어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미술교육” 18)이 필요하다.

이 뿐만 아니라 세계화, 정보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미술교육을 통하여 발전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우리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문화를 통한 미술교육은 전통적인 표현방법의 습득을 통한 창의적 계발에서 벗어나 우리 고유의 시각 문화를 내면 깊이 이해하면서 이를 통해 민족의 문화적 우수성과 예술적 깊이를 발견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 19) 또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주체적 의식을 갖고 새로운 문화시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전통문화를 통한 미술교

17) 박휘락(2003),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주)시공사, p.24.

18) 상계서, p.29.

19) 양유나(2010), “다문화시대의 전통문화 미술교육방안 : 초등학교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p.30.

육이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문화 시대에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민족을 비교하고 이해하는 활동은 다른 문화를 분별력 있게 받아들여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 살펴본 미적체험 영역, 표현 영역, 감상 영역을 통합한 미술교육은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의 조화를 이루어 전인적 인격형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교과임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미술교과가 정규교과에서 그 비중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현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미술과 교육은 소묘, 서양화, 한국화, 서예, 디자인, 공예, 조소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다루는 교과이지만 전공교사의 경우 대학교에서 그 모든 분야를 전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교사들은 전공분야가 다른 영역을 교육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전공교사에 따라 특정 영역에 치우치는 단편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쉽다. 또한 실기 중심의 수업방식에 치중하고 학생들의 실생활의 문제와 동떨어져 이루어지는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사회와 연계를 통한 ‘미술관 활용 수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조차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해서 중·고등학교에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실용할 수 있으며 단편적인 수업을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식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통합교육과정이 모색되어야 한다.

2. 통합교육과정의 이해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현대사회에서 통합교육과정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다양한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과정의 통합 유형에 따른 분류를 모색하였다.

1) 통합교육과정의 개념

통합교육과정이란 일반적으로 전체 교육과정 중 몇몇의 통합된 교과 내지는 통합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괄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통합교육과정은 교과의 경계가 뚜렷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생활과 동떨어져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에서 대두되었다.

이미 연구되어진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과목들을 분리시키는 경계가 없어지고,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교과목들이 사라지는 교육과정 조직을 위한 하나의 접근법”²⁰⁾으로 보는 견해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대안적 방안으로 교과 간의 통합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전체 교육과정 가운데 통합적 조직의 원리를 적용한 몇몇의 통합교과를 가리키는 개념”²¹⁾으로 보는 견해는 통합교육과정의 범위를 한정지어,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교육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교육과정을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절된 지식과 경험을 유의미한 방식으로 서로 관련짓고,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전체로서의 학습이 이루어져, 점차적으로 학습자의 인격을 통합해 가는 교육과정”²²⁾으로 보는 견해는 통합교육과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전인교육에 있으며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교과의 통합이 아니라 지식, 경험의 통합으로 보는 경험

20) 김재복(2000), 「통합교육과정」, 교육과학사, pp.5~6.

21) 김용식(2002),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 학지사, p.395.

22) James B. Ingram(1995), 배진수, 이영만 역, 「교육과정 통합과 평생교육」, 학지사, p.44.

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상기의 개념들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교육과정의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면, 통합교육과정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교과 간의 경계선을 점진적으로 없애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교육의 근본 목적인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교육과정은 경험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후에 경험중심 교육과정과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두 가지 측면으로 발전하였다.

전자는 “부분보다 전체에 우위를 두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교과로 삼으며 인간의 전인적 발달, 균형 있는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²³⁾ 또한 학습자들이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중심으로 함으로서 학습자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학생 중심의 문제에 치중하여 정작 배워야 할 기본 개념에 대해 소홀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갖는다.

후자는 “부분을 전체보다 우위에 두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기본이 되는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는 교과통합의 효율성을 지향하며 교과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강조하여 교과를 통합하려는 수단적 측면을 강조한다.”²⁴⁾ 이러한 견해는 학문의 통합으로 중복되는 내용을 피할 수 있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통합교육이 지향하는 전인적 성장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 이유로 현대에 와서는 통합교육과정의 목적적인 면으로 전인적 성장을 강조하고, 그 방법적인 면으로 교과 통합의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어 다양한 통합방법이 모색되어 지고 있다.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에서 지식의 세분화, 전문화, 대량화의 특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과의 효율성이 점점 떨어져, 학생들의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는 교육 내용으로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할 경우 부딪히게 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대비하지 못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의 방안으로 통합교육과정이 제기되었으며 통합교육과정은 교과 간

23) 이경섭 외 2인(1994), 「교과 통합의 연구」, 교육과학사, p.244.

24) 상계서, p.244.

의 통합을 통해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학습의 비효율성과 실제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 사고의 신장 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과정의 필요성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달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학생들이 학습을 활기차고 즐겁게 할 수 있어서 흥미와 재미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교수 효과 측면에서 보면 교과 간에 중복되는 내용을 피하여 학습자의 부담을 덜 수 있고, 결과 보다는 과정을 강조하여 학습자의 탐구심을 자극하고 협동적인 교수-학습을 지향 할 수 있다. 또한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여러 분야의 지식을 종합하여 응용할 수 있는 통합적 지식과 안목을 기를 수 있으며, 행정적 측면으로는 “교과서의 수를 줄이고 학습 자료를 풍부히 할 수 있으며, 활동중심의 교수 학습을 가능케 함으로써 복식학급 수업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교과서 개발 및 보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²⁵⁾ 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만을 강조하여 통합교육과정을 무분별하게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교사의 능력에 따라 수업의 질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교사는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녀야함으로 수업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면 수박겉핥기 식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쉽고 학습 주제 선정에서 꼭 배워야할 기본 개념을 놓쳐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일 수 있다. 또한 무분별한 통합은 학생들의 인지학습에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자유로운 분위기가 지나쳐 수업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과와 학습자의 올바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연수를 통하여 수업에 맞는 통합의 유형과 통합의 정도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통합교육과정의 기능과 유형

(1) 통합교육과정의 기능

통합교육과정의 기능은 크게 인식론적 기능, 심리적 기능, 사회적 기능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식론적 기능은 지식, 심리적 기능은 학습, 사회적 기능은 학급내의 상호작용,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 등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한다.

25) 유봉호(1993), 「現代教育課程」, 교학연구사, p.121.

첫째, 통합교육과정의 인식론적 기능은 “통합교육과정에서 지식을 다루는 방식과 관련된 기능이다. 이것은 통합교육과정에서 지식을 기억하고 판단하고 활용하는 의식작용”²⁶⁾ 과 관련한다. 학습자들은 새로운 경험을 뇌의 인지과정을 통해 지식으로 받아들여 학습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지식의 계열화, 유의미과정을 통하여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주관적인 인지구조에 맞추어 재구성하여야 한다.

즉 타 교과와의 통합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그날 배우는 내용과 동일요소를 많게 해주어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과정은 사물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형성시켜 전체성, 통일성을 높여 줄 수 있다.

또한 통합교육과정은 학습자가 방대한 지식을 학습하기 보다는 기존에 습득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정보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지식의 유용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 지식의 전문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교육현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과 학습자의 실생활 사이에는 많은 부분에서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통합교육과정의 인식론적 기능은 문제해결능력과 종합적인 안목을 길러주어 이러한 교과 간의 혼동과 실생활과의 괴리 현상을 좁혀주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종합적인 안목은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도움을 준다.

둘째, 심리적 기능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습자와 학습내용의 상호작용을 강조”²⁷⁾ 하는 기능이며, 통합교육과정에서 학습자 분석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준다. 학습자 분석은 학습자가 이미 무엇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학습자의 발달 단계는 어느 수준인지, 어떠한 학습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배경지식을 말한다. 이러한 학습자 분석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데 기준을 제시해 주어 학생들의 개개인에 맞는 개별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26) 진영은(2003), 「교육과정-이론과 실제」, 학지사, p.208.

27) 김재복(2000), 「통합교육과정」, 교육과학사, p.25.

오스벨(Ausubel)²⁸⁾은 “새로운 자료의 학습이 학생의 현재의 지식과 관련되고, 그의 학습양식에 일치될 때 유의미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²⁹⁾고 하였다. 것은 새로운 학습을 학생의 기존의 지식과 연관시켜 교육하면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의미 있는 학습이란 학생의 인지양식과 학습내용이 결합되어 오래 기억할 수 있으며 그 기억을 인출하기 쉽게 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교육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교과 간의 통합을 통해 좀 더 효과적이고 확고하게 한다. 예를 들면, 3.1운동을 배경으로 한 문학을 학습할 때 역사와 그 시대의 미술 감상을 연관시켜 주면 문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된다.

그리고 통합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내용의 선정 및 조직이 강조된다. 심리학자인 피아제(Piaget)는 “발달단계에 따라 학생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교사가 고려하여 학생에게 알맞은 과제를 부여해서 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브루너(Bruner)³⁰⁾는 학생이 어느 수준인가를 전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학생 수준에 맞게 번역을 해 줌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³¹⁾고 하였다.

다시 말해 학습자가 갖고 있는 지식과의 연계성도 중요하지만 교과 통합에 있어 학습자의 발달에 맞는 내용의 선정과 통합의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 분석에 따른 통합교육은 중복학습을 방지하고 개별화 학습을 통한 학습의 효과를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셋째, 사회적 기능은 “통합이 사회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의 해결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³²⁾와 관련된 기능이다.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은 어느 전문분야만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것을 종합하여 응용할 수 있는 통합적 지식이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 보다 지식을 종합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이 강조되는 것이다.

28) 오스벨(David Ausubel, 1919~2008): 미국의 심리학자 겸 교육사상가이며, 인지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유의미 수용학습을 주장하였고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선행조직자라는 장치를 제안하였다.

29) 박준식(2001), 「교수-학습의 이론적 탐색」, 원미사, p.216.

30) 브루너(Jerome S Bruner, 1915~): 미국의 심리학자, 교육학자이며 아동의 지각, 학습, 기억 및 기타 인지에 대한 연구로 미국 교육제도에 영향을 미쳤다.

31) 유광찬, 이영준(2005), 「통합교과 교육」, 교육과학사, 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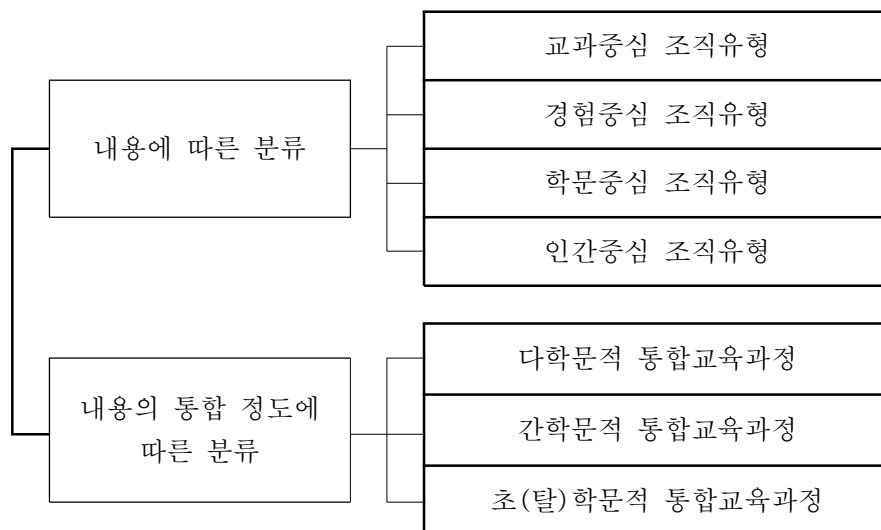
32) 안효일(2009), 「Polanyi의 통합교육과정 이론」, 원미사, p.102.

통합교육과정은 위와 같은 사회적 현상의 대안으로 대두되었으며, 교과 간의 통합으로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사회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하지만 “학교교육에서 강조하는 이론적 지식들은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실용지식과 달리 통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합교육과정을 통한 실용적 지식과 이론적 지식의 상호보완적인 학습은 생활 속에서 문제해결을 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33)

그리고 사회의 문제를 학교의 교육내용으로 끌어들이므로 형식적이며 전통적인 성격을 지닌 학교와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의 상반된 경향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사회적인 문제를 주제로 하는 통합학습은 학습자에게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세계를 접하게 할 수 있게 한다.

(2) 통합교육과정의 유형

통합교육과정의 유형은 두 개 이상의 교과 내용들을 통합할 때 통합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유형을 본 절에서는 내용에 따른 분류와 내용의 통합정도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림 2> 교육과정 통합의 유형 분류

33) 유광찬, 이영준(2005), 「통합교과 교육」, 교육과학사, 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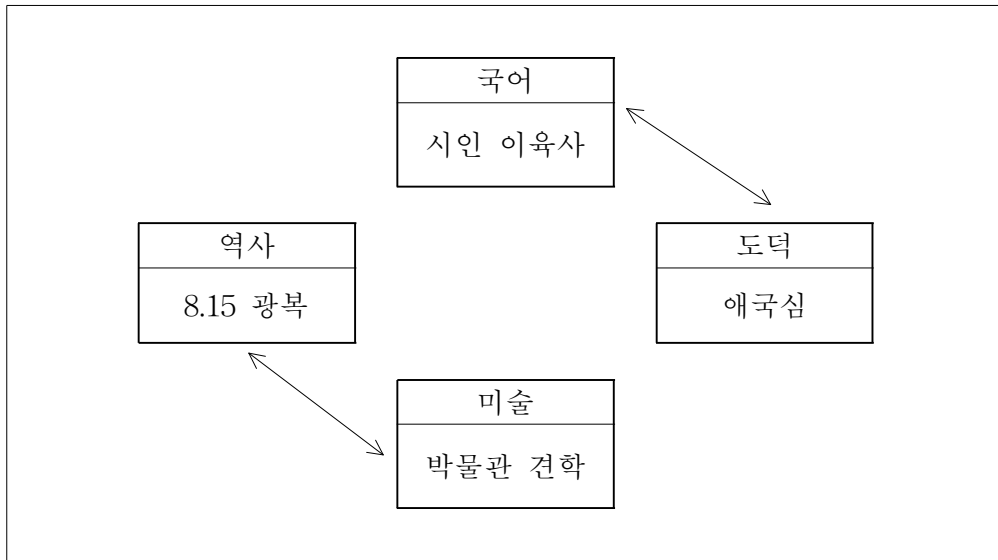
① 내용에 따른 분류

통합교육과정의 내용에 따른 분류는 교육과정의 발전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으며 교과중심, 경험중심, 학문중심, 인간중심의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교과중심 조직유형은 교과를 교육 내용으로 하며 이때의 “교과란, 전통적인 인류의 문화유산 가운데 비교적 학문적인 형태를 지니면서 가르칠 가치가 있는 내용들을 그 학문적 특성에 따라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등의 교육과정 조직 원리에 의거하여 묶어놓은 것”³⁴⁾ 을 말한다. 즉 학교교육과정 내의 교과를 중심으로 한 조직유형으로 교과의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교과 안에서의 관계로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림 3>은 국어와 도덕, 역사 그리고 미술 교과 간 통합교육과정의 교과중심 조직모형이다.

교과중심의 통합수업은 교과 마다 8.15 광복을 주제로 관련 있는 단원을 선정하여 같은 시기에 각각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 학생들은 광복에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교과에서 학습할 수 있어 인지구조를 형성하는데 용이하다.



<그림 3> 교과중심 조직유형

34) 한국교육과정학회(2002),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p.393.

또한 교과중심 조직유형은 가장 전형적인 방법으로 내용의 선정이 용이하고, 체계성을 살린 내용 조직이 쉬우며 각 교과 간의 연관성을 강조할 수 있다.

하지만 교과 간의 경계가 뚜렷하여 각 교과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다른 교과의 내용과 너무 괴리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교과 내용의 중복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인위적으로 내용을 묶어 더 모호해 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과중심 조직유형이 강조하는 교과는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지며, 학습자 중심이기보다 교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져 학습자의 흥미와 심리적 반응이 부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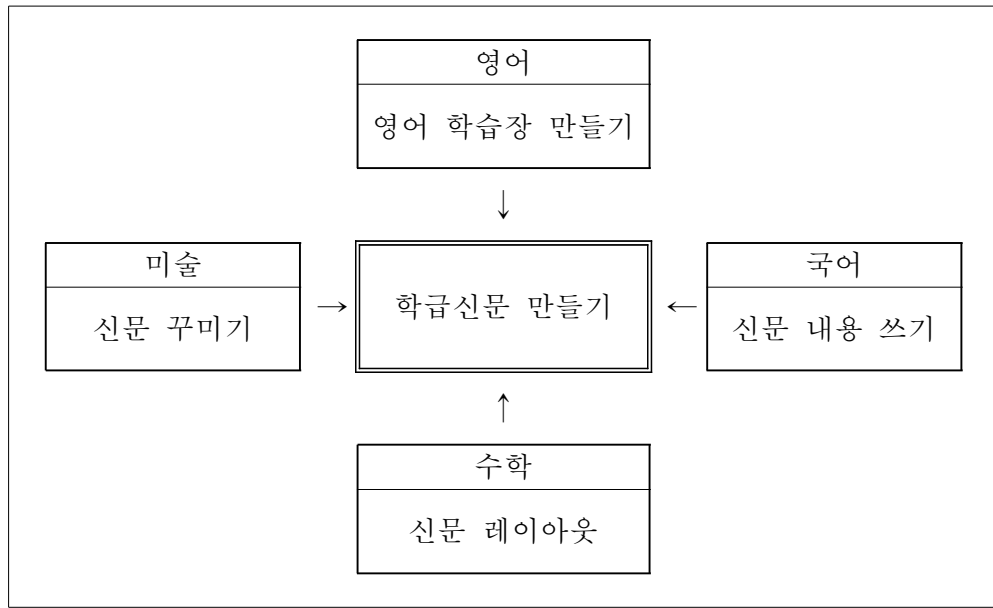
둘째, 경험중심 조직유형은 교과중심 조직유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교과의 선을 없애는 통합형의 시도가 이루어진다. 이때의 통합이란 학교와 사회, 개인과 사회의 통합으로 주제는 학생들의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생활과 관련된 활동의 경험을 중시한다.

경험중심 조직유형은 “교과라든지 학습 영역의 구분을 완전히 제거할 뿐 아니라 교육과정의 일방적인 사전계획을 배제하고 학습자의 요구와 경험을 중심으로 학생과 협력하여 교육현장에서 직접 교육과정을 계획할 수도 있다.”³⁵⁾ 그러므로 학생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획일적인 교육내용에서 벗어나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이 구성되어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주며 학교와 사회의 통합적 주제는 정제되어 있는 학교와 변화하는 사회 간의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사전에 계획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능한 교사만이 이러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잘못하면 내용의 깊이보다는 너무 피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나 흥미만을 주제로 다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교재의 기본 내용 이수를 보장하지 못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 학생들의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일 수 있으며 학생들마다 각각의 교육과정이 달라질 수 있어 다인수 학급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35) 오만록(2010), 「교육과정론」, 동문사, p.54.



<그림 4> 경험중심 조직유형

<그림 4>는 경험중심 조직유형의 예시로 ‘학급신문 만들기’ 라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영어, 국어, 미술, 수학 교과가 통합된 모형이다. 이 모형은 주제와 관련된 교과의 단원 내지는 학습 내용을 통합하여 교과의 경계를 없애고 새로운 교과를 형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과의 운영은 각 교과마다의 깊이 있는 학습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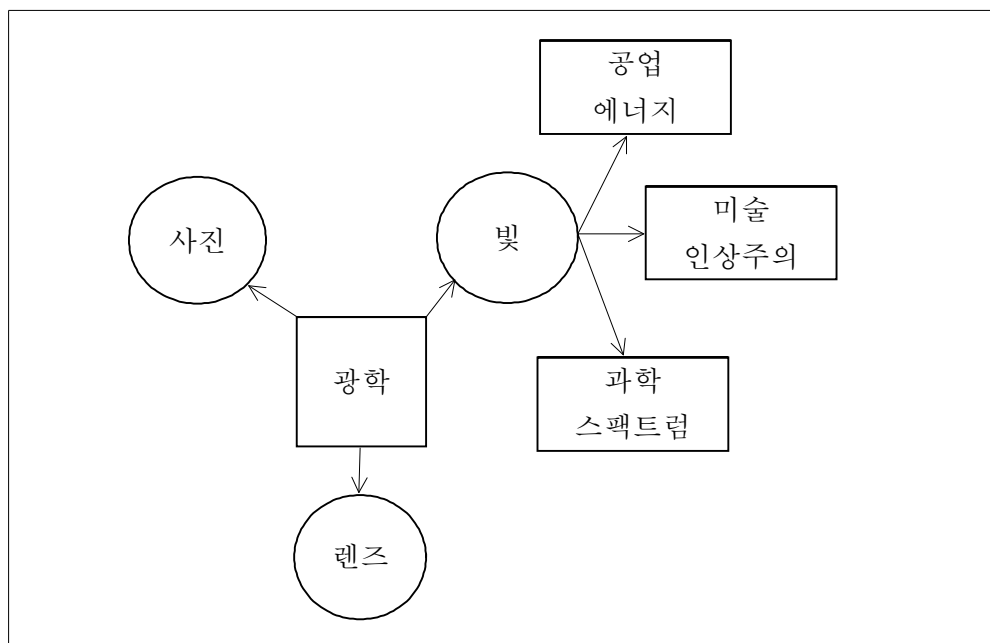
셋째, 학문중심 조직유형은 교과에 내포되어 있는 기본 개념들과 이들의 구조화 및 학습에서의 인지적 과정을 강조한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지식의 구조를 주장한 브루너이다. 브루너에 의하면 “지식의 구조가 교육에 도입됨으로써 교과의 이해와 전이가 용이하며, 이러한 전이는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내용을 표현 양식만 달리하면 어떠한 발달 단계의 아동에게도 가르칠 수 있다”³⁶⁾ 고 전제한다.

학문중심 조직유형의 대표적인 나선형 조직 유형은 학습 내용 조직의 계열성을 반영하고, 학습자의 성장 단계와 학습 내용을 관계 지어 어떠한 개념이라도 그

36) 김재복(2000), 「통합교육과정」, 교육과학사, p.78.

깊이와 폭을 달리하면 어떤 발달 단계의 아동이라도 학습할 수 있다는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다. “나선형 조직에 의한 교과 내용의 통합은 여러 교과 내용의 확대와 심화가 하나의 나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37)

<그림 5>는 학문중심 조직유형의 나선형 조직 중 종적관계를 모형화 한 것이다. 광학이라는 학문을 중심으로 종적으로는 광학과 관련된 내용의 폭이 넓어지고 횡적으로는 종적관계의 내용을 발달 단계에 맞게 단계적으로 배열하게 된다. 이러한 횡적배열은 학습자에 발달에 맞는 개별화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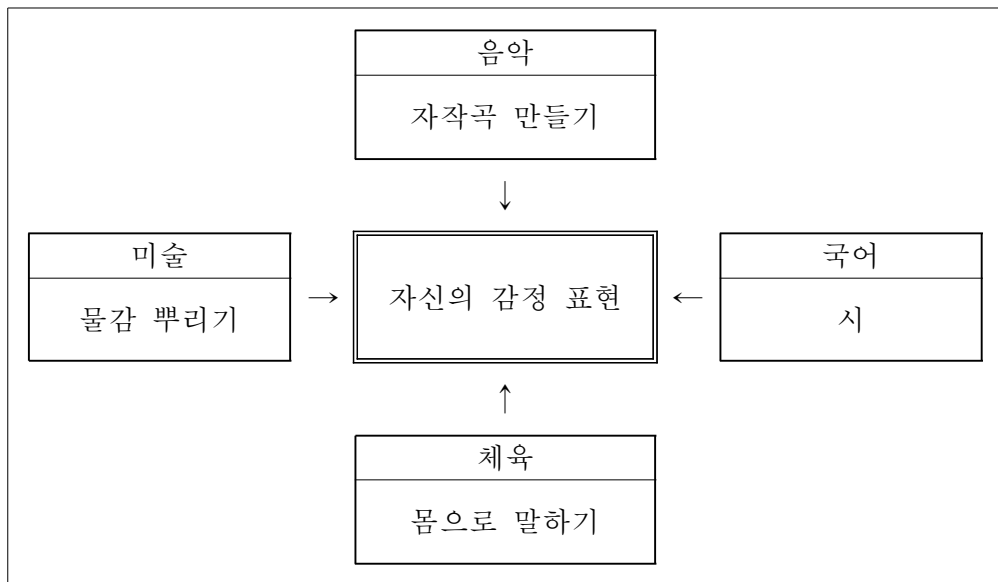
<그림 5> 학문중심 조직유형

이러한 학문중심 조직유형은 학문의 요소들을 계속성, 계열성에 의해 배열하고 재조직 하여 학습자의 발달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짐으로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문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정서적인 측면이 소홀하여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며 학생들에게 가르쳐지는 학문을 선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37) 이경섭(1999), 「교육 과정 쟁점 연구」, 교육과학사, p.362.

셋째, 인간중심 조직 유형은 “고도의 산업 사회에서 상실되어 가는 인간의 정체 의식을 회복시키고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실현하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되찾고 자아실현을 이루어 가는 인간을 육성”³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림 6>은 인간중심 조직유형의 모형으로 ‘자신의 감정 표현’이라는 정의적 측면의 주제를 중심으로 각각의 교과 내용이 통합되는 형태를 갖는다. 이 조직유형은 음악, 미술, 국어, 체육 교과를 통하여 다양한 자기표현의 기회를 갖는 동시에 교과내의 인지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음악은 작곡, 미술은 표현기법, 국어는 운율, 체육은 율동에 관련된 교과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그림 6> 인간중심 조직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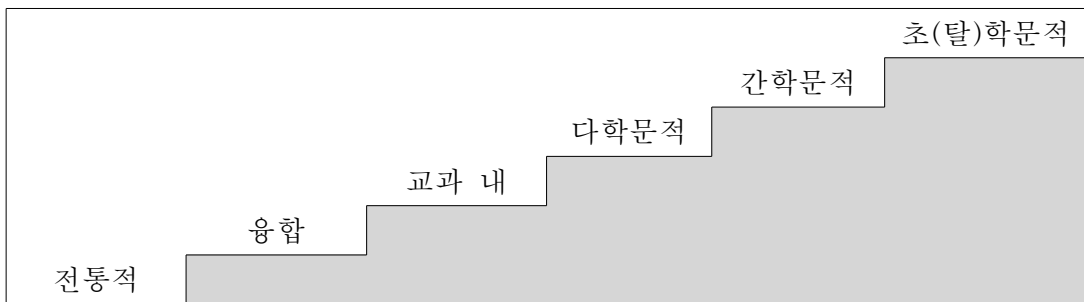
그러므로 인간중심 조직유형은 인지적인 측면과 동시에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학습자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확립하고 전인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도덕적, 심미적 교과를 강조하여 학업 성취도의 결핍을 초래하며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실행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38) 김재복(2000), 「통합교육과정」, 교육과학사, p.88.

② 내용의 통합 정도에 따른 분류

내용의 통합 정도에 따른 분류는 통합에 있어 교과 간의 경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통합의 형태가 단계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그 경계가 모호해짐을 알 수 있는데, <그림 7>은 “통합을 하나의 연속체로 보고 통합 형태에 있어 위계를 두어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계발에 있어 이러한 움직임은 반영해야 한다” 39)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 융합, 교과 내 통합’은 아직 교과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단계로 통합교육과정의 성격이 미약하다. 그래서 내용의 통합정도에 따른 분류는 <그림 7>에서 교과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다학문적 통합, 간학문적 통합, 초(탈)학문적 통합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 출처: S.M.Drake(2009), 박영무, 허영식, 유제순 공역, 「교육과정 통합의 기초」, 교육과학사, p.34.

<그림 7> 통합의 연속체

다학문적, 간학문적 통합의 경우 그 통합의 주체가 학문의 기본 개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학문중심 조직유형의 기본 틀을 갖는다. 하지만 초(탈)학문적 통합은 학문중심에서 벗어나 교과 간의 경계를 없애면서 학습자의 실생활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험중심 조직유형의 특징을 갖는다.

다학문적 교육과정은 “인구, 공해, 범죄, 환경 등과 같이 사회나 자연현상 그리고 인간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 또는 주제와 관련하여 그 해결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문이 다양하게 동원하여 활용” 40)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39) S.M.Drake(2009), 박영무, 허영식, 유제순 공역, 「교육과정 통합의 기초」, 교육과학사, 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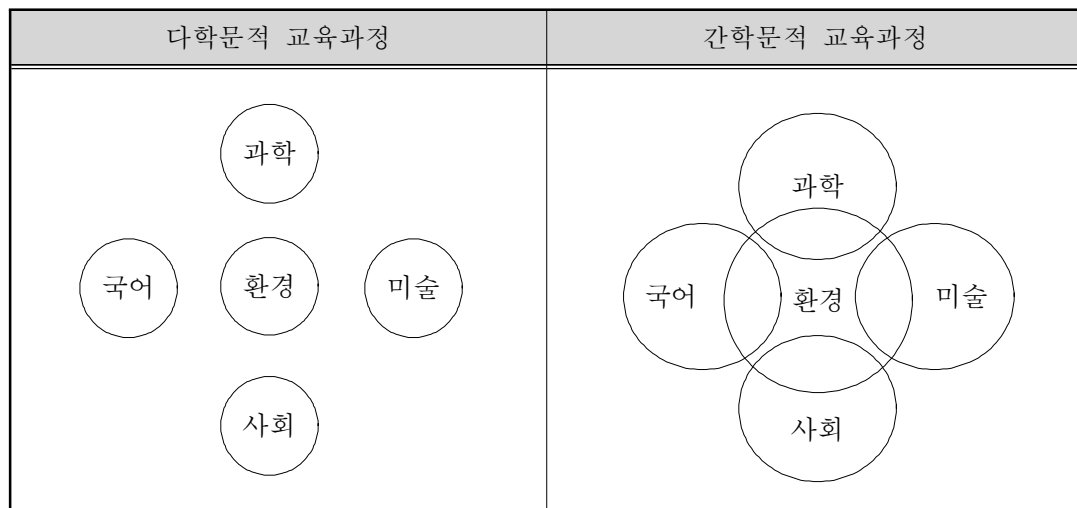
40) 진영은(2003), 「교육과정-이론과 실제」, 학지사, p.213.

통합방법이다. 그래서 학문들은 같은 기간 동안 가르쳐지는 테마 혹은 쟁점으로 통하여 연결되지만, 독립된 수업에서 가르쳐지기 때문에 교과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가 힘들고 하나의 쟁점에 대한 학습은 효과적이지만 중복되는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발전한 간학문형 교육과정은 적어도 두 개 이상의 학문분야를 결합하거나 상호 관련시키는 것이다. “이 교육과정은 학문들 사이에 중복되는 기능, 개념, 태도를 찾아내어 내용 개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혼합되면서 교과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⁴¹⁾ 전통적인 수업 형태에서 팀 티칭으로 변화하고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된다.

팀티칭을 활용한 통합 수업은 두 교과 이상의 교사가 팀이 되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되며 학생들은 한 교실에서 각각의 교사들로부터 학습내용을 제공받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수업 준비도와 능력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림 8>의 ‘환경’이라는 주제를 갖는 두 가지의 모형을 통해 다학문적 교육과정과 간학문적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8> 다학문적 교육과정과 간학문적 교육과정의 도식

41) 레베카 크로우포드 번스(2001), 김대현 외 역음, 「교과 경계선 허물기」, 학지사, p.23.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다학문적 교육과정은 교과와 경계는 유지되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 같은 시기에 각기 다른 공간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을 주제로 하여 과학시간에는 ‘환경오염’, 미술시간에는 ‘환경디자인’, 국어시간에는 ‘환경보호 글짓기’, 사회시간에는 ‘우리 마을’이라는 단원을 선정하고 각각의 수업시간에 같은 주제를 학습하게 된다.

반면에 간학문적 교육과정은 교과 간의 연결이 유기적으로 되어있어 기존의 과학, 국어, 사회, 미술의 교과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환경’이라는 주제를 갖는 새로운 교과를 형성한다. 예를 들면,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우리 마을의 상징물 만들기’와 같이 환경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여러 명의 교사가 팀티칭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교육과정은 교과 간의 통합으로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학습을 제공하고 주제 선정에 있어 학생보다는 교사의 비중이 크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초(탈)학문적 접근은 “다학문적 통합이나 간학문적 통합의 수준을 넘어서 여러 학문영역으로부터 추출된 내용을 토대로 전혀 새로운 주제영역을 설정”⁴²⁾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통합적 접근이 두 개 이상의 학문들 사이의 연결을 중심으로 시도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능동적인 문제해결활동이나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통한 프로젝트중심의 학습활동을 강조한다.

특히, 초(탈)학문적 교육과정은 도제나 개인 교수, 직업 영역 견학, 봉사활동 학습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활동 등과 같이 학교 밖에서도 학습활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다른 교육과정과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주제를 선정하고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업에 많은 권한을 갖게 되어 학습자에 맞는 개별화 수업이 이루어지고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교육과정과 달리 교사가 아닌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수업을 계획하기 때문에 교사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힘들고 지나치게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 위주로 흘러 기본적인 학문을 학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42) 오만록(2010), 「교육과정론」, 동문사, p.371.

<표 3> 통합 유형의 특징

구분	다학문적 통합	간학문적 통합	초(탈)학문적 통합
조직의 틀	각 학문은 서로 독립적	각 학문은 서로 연결	각 학문은 하나로 융합
주요 내용	각 학문의 지식	각 학문에 공통적인 탐구기능	실제 생활에서 요구되는 고급 사고력
평가	지식	탐구기능	실제 생활문제의 해결력

※ 출처: 민혜림(2009), “사회과 통합교육과정 연구 : (고등학교)교과서 분석 중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p.12.

<표 3>은 세 가지 통합 유형에 따른 특징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다학문적 통합과 간학문적 통합은 학문의 형식이 남아있는 반면, 초(탈)학문적 통합은 학문의 틀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의 교육보다는 학생들이 세운 계획에 맞는 지역사회의 학습자원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간학문적 통합까지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초(탈)학문적 통합은 교사보다는 주제의 선택과 운영에 있어 학습자의 역할이 매우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통합교육과정의 유형은 각각의 다른 특성을 지니므로 장, 단점을 평가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통합교육과정을 적용할 때에는 한 가지 정형화된 유형에 얽매이기보다 현장에 맞는 유형을 연구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미술과와 타 교과의 통합교육과정의 기대 효과

통합교육은 두 개 이상의 교과를 어떠한 내용으로 어느 정도의 통합을 허용할 것인가에 따라 그 효과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본 절에서는 미술과 타 교과의 주제를 중심으로 간학문적 통합을 전제로 하여 그 기대 효과를 살펴보았다.

첫째, 인지구조의 형성을 도와 학습의 이해도를 높여준다.

미술교과는 시각적이고 체험적인 특성으로 학생들의 시각적 흥미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습에 대한 관심을 끌기에 더 없이 좋은 교과이다. 그렇기에 수업에 있어 동기유발에 매우 효과적이며 지식의 전달과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브루너는 “직접적 경험은 행동적 단계, 매체를 통한 간접적 경험은 영상적 단계, 언어와 시각기호를 통한 학습은 추상적·상징적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그는 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행동적 단계-영상적 단계-추상적·상징적 단계를 거쳐서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 쉽다”⁴³⁾ 고 하였다. 이는 언어와 시각기호가 중심이 되는 주지교과와 시각적이고 행동적인 미술의 표현활동의 통합수업이 학생들의 인지형성에 도움이 되면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수업 형태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에게 맞는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어 수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창의력의 계발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킨다.

창의성은 시각, 언어, 음악, 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충족할 수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한정된 영역만을 다루기 때문에 미술과 통합수업을 통하여 다양한 영역의 창의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특히 미술과는 특정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보다는 확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즉 사고의 제약이 없는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돕는다.

또한 통합수업은 보다 실생활과 연관된 문제를 주제로 다룰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해석방법을 학습함으로써 학교 수업에서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겪게 되

43) 백영균 외 7인(2003), 「유비쿼터스 시대의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학지사, pp.240~242.

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자기표현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자아 존중감 형성을 도와준다.

미술표현을 통한 자기표현활동은 자신의 내재된 욕구를 시각적으로 끌어내는 활동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배출구 역할을 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자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표출함으로써 독립적인 사고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각각 다른 교과에 흥미를 갖는 학생들은 여러 과목이 통합되어 있어 자신감을 갖고 모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성취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교과에서 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올바른 자아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협동심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준다.

미술의 표현활동은 다양한 재료와 교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중 공동작업, 모둠 활동 등은 협동심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통합수업에서는 평가에 대한 강박감이 해소되어 급우들 간의 경쟁적 관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학생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하는 활동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올바른 인간관계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다섯째, 감상교육을 통한 정서의 함양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화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감상교육을 통하여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발달과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주지교과에 치우쳐있는 학교교육에서 감성 교육에 가장 적합한 수업은 미술교과라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며 타인의 작품을 통해서도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올바른 정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교과와의 통합은 각 분야와 관련한 문화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미술교과는 고대의 동서유물에서부터 시각적 미디어를 포함하는 현대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어 다원적인 문화를 이해하고 물밑듯이 밀려드는 외래문화와 유해 문화들 속에서 주체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밑거름이 된다.

Ⅲ. 통합적 지도의 실제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방안’을 내놓았다. 예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어 등 일반 교과에서도 예술수업기법을 활용하는 통합수업을 지향하고 특히, 과학과 예술의 통합교육을 장려하여 미술과와 과학과의 통합교육이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데 효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미술표현활동을 활용한 미술과와 타 교과와의 통합수업을 제안하고, 미술의 시각적 표현과 상반되는 언어적 표현의 국어와 창의성 신장을 공통 목적으로 하는 과학과를 통합 교과로 선정하였다.

본 장에서는 미술교육과 통합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미술과와 타 교과와의 통합지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 7차 교육과정의 미술과 국어, 과학의 단원을 선정하고 통합적 요소를 분석하여 미술과와 국어과, 미술과와 과학과의 실제적인 통합수업을 구안하였다.

1. 국어과 통합 지도의 실제

본 절은 미술과와 국어과의 통합교육의 실례로, 미술과와 국어과의 통합의 의미를 찾고, 제 7차 교육과정의 교과 간 단원의 관련성을 분석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어과의 통합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적 교수-학습 지도 과정안을 구안하였다.

미술과와 국어과의 통합 수업은 미술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은 S고등학교 1학년의 한 학급 2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업 후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1) 미술과와 국어과의 통합의 의의와 단원분석

(1) 미술과와 국어과의 통합의 의의

2009년 12월에 고시된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미술과가 교과 영역에서 ‘예술’로서 음악과 함께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다. 학생들에게 과목의 수를 줄여준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지식위주의 수업으로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미술이나 음악 중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수업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줄어들어 학생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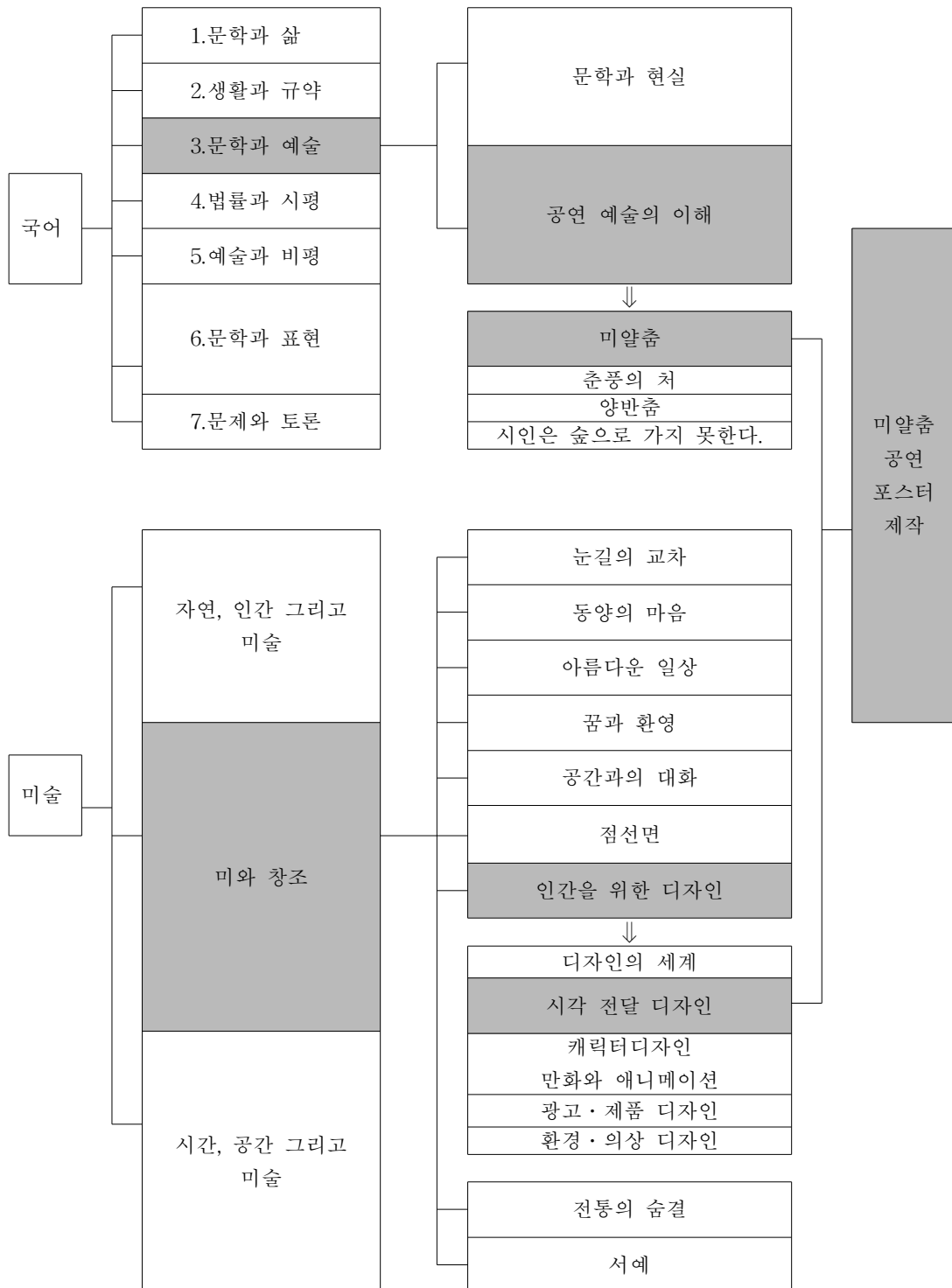
국어교과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음악과 미술의 감상영역이 각 단원의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구성되어 예술과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감상영역에 한정되거나 국어 교사가 다루기에는 내용 전달이 미흡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미술과와 국어과를 통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미술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감상영역에 한정된 교과 통합을 표현영역으로 확장하여 미술표현영역의 심화된 학습과 학생들의 궁금증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 미술교육을 통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통합의 의의가 있다.

또한 통합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면, 국어과와 미술표현 활동의 통합은 시지각을 자극하여 국어교과의 흥미를 유발하고 수업의 효율성과 미적안목을 높여주며, 시각과 언어가 통합된 자기표현은 우뇌와 좌뇌의 기능을 골고루 자극하여 균형 있는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꾸준한 자기표현 활동은 독립적인 사고를 촉진시키고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본 절에서는 위와 같은 통합적 의의를 바탕으로 국어과의 학습내용을 주제로 하고 미술과의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통합적 표현활동을 구안하였다.

통합적 표현활동은 각 교과와 경계를 무너뜨리고 한 교실에서 팀티칭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는 간학문적 통합 유형을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고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학습을 제공할 수 있지만 새로운 형식의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권한과 책임이 따르므로 수업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교사의 능력에 따라 수업의 내용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

(2) 미술과와 국어과의 통합적 단위 분석



<그림 9> 미술과와 국어과의 단위 분석

<그림 9>는 각 교과와 대 단원과 중 단원, 소 단원의 관련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국어과와 미술과의 통합수업은 ‘대중성’을 주제로 두 교과 간의 간학문적 통합을 이룬다.

본 수업의 주제로 활용될 국어과의 학습내용으로 공연예술의 종류와 공연예술이 종합 예술로서 갖는 다양한 특성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는 ‘미알춤’ 단원을 선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표현도구로 활용될 미술과의 영역은 대중성을 강조하는 시각 전달 디자인영역을 선정하였다.

다음의 <표 4>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선정된 각 단원이 갖는 특성을 바탕으로 통합적 요소를 분석한 것이다.

<표 4> 미술과와 국어과의 통합적 단원 분석

과목	국어	미술
단원	미알춤	시각 전달 디자인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 예술의 언어와 표현의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연 예술 작품이 지니는 언어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활동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호, 심벌, 다이어그램, 지도,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사람들 사이에 쉽고, 편리하고,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디자인 분야이다.
통합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적으로 대중들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여 미술의 경우 시각적 표현을, 국어의 경우 언어적 표현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는다. 공연 예술이라는 종합 예술의 범위 안에 미술과 국어를 모두 아우르고 있어 하나의 통합적 주제를 갖는다. 	

※ 출처: 조남현 외 7인, 「고등학교 국어 (상)」, (주)교학사, p.160./ 김정희 외 2인, 「고등학교 미술」, 교학연구사, p.38.

국어과의 공연 예술 단원은 공연 예술의 언어와 표현의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연 예술 작품이 지니는 언어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단원이다. 그 중 공연 시나리오 학습은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언어적 유희를 통하여 학습하고 그 장면을 주인공들과 감정이입을 함으로써 상상하게 된다.

그리고 미술과의 시각 전달 디자인 단원은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이용하여 대중들 사이에 쉽고, 편리하고, 빠른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영역이며 그 중 포스터 디자인은 공연의 성격과 대중성을 공통적으로 갖는다. 하지만 포스터는 공연의 시각적 일러스트나 사진, 공연의 제목과 장소, 일시 등을 종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공연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언어적 표현과 시각적 표현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작품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공연 예술은 음악, 무용, 연극 등의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그 중 “미얄춤 같은 판소리와 민속극은 언어적으로 관객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낯설고 특별한 언어와 관객과 얼굴을 맞대고 호흡을 나누는 생동감 있는 언어, 현장 상황과 관객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즉흥적인 언어, 표정과 몸짓, 노래, 춤, 소품 등과 함께 어울려서 힘을 내는 언어 등의 특징”⁴⁴⁾을 갖는다. 이러한 공연예술의 언어적 표현은 탈, 의상, 무대 디자인, 조명, 소품 등의 시각적 표현을 통하여 관객들의 흥을 더욱 돋구어 줄 수 있으며, 이때의 시각 전달 디자인은 언어적 표현의 내용전달력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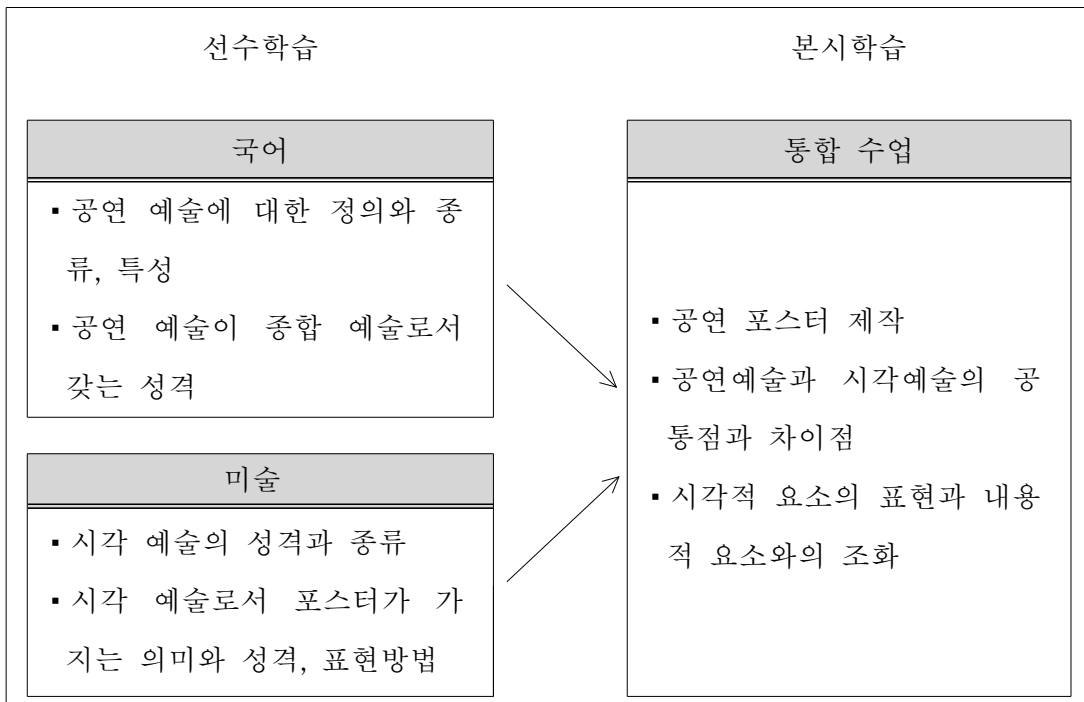
국어과와 미술과는 대중들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언어적 표현과 시각적 표현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공연 예술이 종합 예술로서 미술과 국어의 성격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요소를 갖는다.

그러므로 통합 수업은 공연의 언어적 표현특성과 공연 예술 작품이 지니는 언어의 문화적 가치에 대하여 이해하고 형과 색을 활용한 시각 예술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다. 또한 통합적 표현활동은 언어적 표현을 시각적으로 재해석하는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해석 과정과 종합적 사고를 통해 창의성의 신장을 가져올 수 있다.

44) 조남현 외 7인, 「고등학교 국어 (상)」, (주)교학사, p.160.

2) 수업지도안

본 수업은 <그림 10>과 같이 선수학습, 본시학습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선수 학습은 미술과와 국어과의 개별 수업으로 진행되고 본시학습은 팀티칭으로 실시하게 된다. 팀티칭이란, 여러 명의 교사가 팀을 이루어 학생의 학습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조직 형태로 본 수업에서는 국어교사와 미술교사가 한 조가 되어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림 10> 미술과와 국어과의 통합적 교수-학습 계획

본시 학습에 앞서 선수학습을 통하여 국어과는 공연 예술에 대한 정의와 종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공연 예술이 종합 예술로서 갖는 성격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포스터로 제작하게 될 ‘미알춤’의 시나리오를 통하여 등장인물의 외모와 성격 그리고 시대적 배경 등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미술과의 선수학습은 시각 예술의 성격과 종류에 대하여 이해하고 시각 예술로서 포스터가 가지는 의미와 성격, 그리고 표현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게 된다.

본시학습은 50분 동안 진행이 되며 도입 단계는 국어과의 내용정리를 통한 전시학습의 확인이 이루어지며 본시 학습 목표와 주제 그리고 준비물 등을 확인하고 제시한다.

전개 단계는 학습내용 제시, 실습, 발표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학습내용 제시 단계에서는 포스터와 관련된 유의사항, 그리고 공연포스터와 영화포스터의 비교 설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실습단계에서는 각 조별로 예시작을 바탕으로 공연포스터를 제작하게 된다. 포스터를 제작할 때는 시각적 요소(일러스트, 사진)과 내용적 요소(제목, 부제, 장소, 일시)의 레이아웃과 디자인 원리의 활용을 지도한다. 발표 단계에서는 완성된 작품에 대하여 발표가 실시되며 발표 시 유의사항과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게 된다.

정리 단계에서는 수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교사는 평가 항목을 사전에 설정하여 국어교사와 미술교사가 모두 참여하도록 하고, 학생들은 자가 평가지를 작성하여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교사는 수업의 전체적인 조연과 함께 차시예고를 하고 마무리 하게 된다.

본 수업에서 국어교사는 ‘미얄춤’의 등장인물과 줄거리에 대하여 간단한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내용을 상기시키고, 학생들의 실습이 시작되면 개별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이 포스터에 들어가는 문구를 선택하는데 조언자가 되며 조별 발표 시에는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미술교사는 포스터 실습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며 전개 단계에서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영화포스터와 공연포스터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학생들에게 전 차시에 학습한 내용을 상기 시킨다. 그리고 실습 시 순회지도와 발표 시에는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국어교사와 함께 조언자 및 평가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수업의 진행 시 각 교사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교사들의 개입을 자제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창의적 수업을 위한 토론이나 생산적 사고의 시간이 부족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자칫 수업 분위기를 산만하게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미술 표현은 시간적 제약을 두기 힘든 만큼 수업 진행을 하는데 교사들의 융통성이 요구된다.

<표 5> 미술과와 국어과의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미알춤’ 공연 포스터 제작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스터 디자인의 종류와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미알춤’의 내용을 이해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 공연 예술이 갖는 종합 예술로서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준비물		교과서, ‘미알춤’에 등장하는 탈 이미지, 풀, 가위, 매직, 바탕종이		
학습 단계	학습과정	학습 활동		시간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및 출석 점검 전시학습 내용확인 학습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출석 점검 전 시간에 배운 국어수업에 관해 질문한다.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른 자세로 인사한다. 큰 소리로 대답한다. 질문에 대답하고 지난 시간 내용을 상기한다. 제시된 학습목표를 숙지한다. 	5
전개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내용 제시 국어과 내용 정리 유의사항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u>ppt1</u>을 제시하고 포스터를 비교 설명하며 포스터의 종류와 요소를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알춤’ 공연포스터를 제작하기 위해 ‘미알춤’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미알춤’ 공연포스터의 예시작 (ppt2,3)을 제시하고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을 경청하고 질문에 대답한다. ‘미알춤’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미알춤’ 공연포스터 예시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유의사항을 숙지한다. 	

ppt2



공연일정 : 2011년 6월 8일 PM.7시
 공연장소 : 00문화회관 소극장

ppt3



공연일정 : 2011년 6월 8일 PM.7시
 공연장소 : 00문화회관 소극장

▪ 실습

▪ 공연포스터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나눠주고 제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실을 순회하며 개별지도 한다.

▪ 발표

▪ 완성된 작품을 조별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 발표 시 유의사항을 숙지시킨다.

▪ 조별 발표를 유도한다.

▪ 공연포스터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상기시키며 포스터를 제작한다.

▪ 발표내용을 정리한다.

▪ 발표 시 유의사항을 숙지한다.

▪ 유의사항을 상기하며 발표한다.

40

정리 (10)	▪ 평가	▪ 평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개인별 자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평가지를 작성한다.	50
	▪ 정리정돈	▪ 준비물을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 준비물을 정리한다.	
	▪ 차시예고	▪ 차시예고를 한다.	▪ 경청한다.	

<표 6> 미술과와 국어과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평가 관점	평가방법
1. ‘미알춤’의 내용을 충분히 표현되었는가? 2. 포스터 디자인의 요소를 빠뜨리지 않았는가? 3. 디자인의 원리를 응용하여 조형성 있게 표현하였는가? 4.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였는가? 5. 발표 시 올바른 자세로 임하였는가?	▪ 자기평가 (체크리스트) ▪ 발표

평가는 교사의 평가와 학생 개인의 자기평가로 이루어진다. 교사의 평가는 발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발표 시 <표 6>의 항목이 잘 되었는지 평가를 한다. 자기평가의 경우는 평가항목은 교사의 평가항목과 동일하며 단 자신의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표 6>과 같이 총 5개의 항목이며, 이 중 1번 문항은 국어과의 성격을 갖으며 2,3,4번 문항은 미술과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1번 문항은 인지적 영역, 2,3,4번은 심동적 영역, 5번 문항은 정의적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어 전인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통합수업의 평가결과는 교과 성적에 반영하기 보다는 과정에 대한 학생 자신의 피드백으로 활용되고 교사는 그 결과를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며 학생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표 7>은 교수-학습 과정안 안에서 활용된 예시자료의 설명내용이다.

<표 7> 미술과와 국어과 통합수업의 PPT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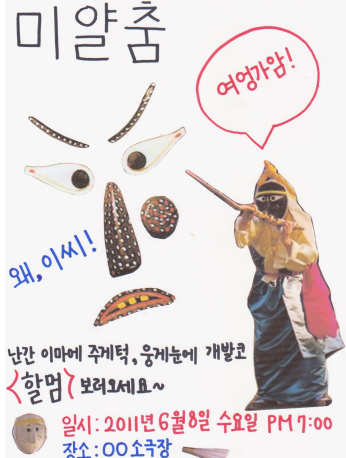

자료 번호	자료	자료설명
ppt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 공연포스터의 비교 - 공통점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한 스토리를 암시한다. - 차이점 공연 포스터의 경우 반드시 장소와 일시(기간)을 기입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영화에는 주연 배우의 소개가 있다.
ppt2	 <p>공연일정 : 2011년 6월 8일 PM.7시 공연장소 : 00문화회관 소극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되는 두 가지 탈을 이용하여 리듬감을 강조한 공연 포스터이다. ▪ 디자인의 원리 중 점증을 이용하였다.
ppt3	 <p>공연일정 : 2011년 6월 8일 PM.7시 공연장소 : 00문화회관 소극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에 등장하는 모든 탈을 이용하여 강조의 원리를 이용하여 작품을 하였다. ▪ 디자인의 원리 중 통일과 강조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분석

고등학교 1학년 28명을 대상으로 미술과와 국어과의 통합수업을 실시하였으며 대상 학교의 경우 2011학년도 미술과 음악의 선택과목에서 음악을 선택하여 미술 교육과정이 없는 학교였다. 그래서 본 수업에 앞서 기본적인 미술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통합수업을 통하여 미술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술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부각시켜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다음의 <표 8>은 학생들의 작품으로, 작품 설명은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8> 「‘미알춤’ 공연포스터」의 학생작품

학생 작품	작품 설명
	<p>미알 할멈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할멈의 인상착의에 포인트를 주어 포스터를 디자인하였다.</p> <p>미알 할멈의 생김새에 대한 내용은 국어 교과서의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말 주머니의 ‘여영가암!’은 극에서 미알할멈이 미알영감을 찾는 대목에서 영감을 얻었다.</p>
	<p>미알 할멈과 미알영감이 처음에는 서로 그리워 찾아다니다 결말에 가서는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극의 반전되는 부분을 이용하여 디자인하려 한 것이다. 그래서 이미지 또한 서로를 찾아다니는 미알할멈과 미알영감을 선택하였고 장소와 시간, 제목은 말 주머니로 표현하였다.</p>

수업 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표 9>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9> 미술과와 국어과 통합수업의 설문 결과

문항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합계
▪ 이번 수업을 통하여 포스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20 (71.4%)	8 (28.6%)	0	28
▪ 국어시간의 학습내용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15 (53.6%)	13 (46.4%)	0	28
▪ 평상시 어떤 수업이 더 재미있는가?	국어	미술	X	28
	8 (28.6%)	20 (71.4%)		
▪ 미술수업을 같이 하면 어려운 문제에 흥미를 갖는데 도움이 될까요?	16 (57.1%)	12 (42.9%)	0	28

‘이번 수업을 통하여 포스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20명(71.4%)의 학생이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8명(28.6%)의 학생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소 포스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수업을 통해 공연포스터와 영화포스터의 차이점을 알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예시 영화 포스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호응을 얻는데 효과적이었으며 이해를 돕는 역학을 하였다. 반면 다양한 포스터를 접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웠으며 하나의 예시로 포스터를 이해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국어시간의 학습내용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는 15명(53.6%)의 학생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13명(46.4%)의 학생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이 질문에는 학생들의 국어시간을 통한 선수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냐에 따라 응답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국어시간에 학습내용이 충분히 이해된 학생들은 심화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반면 학습내용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국어교과서를 다시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였다.

수준별 수업을 위하여 국어교과에 대한 정리된 학습지를 나눠주어 짧은 시간에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평상시 어떤 수업이 더 재미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8명(28.6%)의 학생이 ‘국어’ 라고 응답하였고 20명(71.4%)의 학생은 ‘미술’ 이라고 응답하였다. 미술에 흥미를 갖는 학생이 많을수록 국어시간의 학습내용을 미술과와 통합하는데 수월하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국어에 흥미를 갖는 학생들은 국어과목의 성적이 우수하였으나 미술에 흥미를 갖는 학생의 일부는 국어과목에 낮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평소의 국어시간보다 흥미를 갖는 학생이 많아져 활발한 수업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미술수업을 같이 하면 어려운 문제에 흥미를 갖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 16명(57.1%)의 학생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고 12명(42.9%)의 학생은 ‘보통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미술 통합수업을 통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는 높일 수 있으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 통합 수업시간을 1차시에서 2차시로 연장을 하거나 통합 전 선수학습의 성취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미술활동을 통하여 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표 9>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미술과 국어과의 통합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국어시간에 갖는 일상적이고 정적인 수업형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학습의 형태를 경험함으로써 학습의 동기유발은 물론 흥미를 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미술에 흥미를 갖는 학생 중 국어에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수업에 임할 수 있었으며, 조별학습은 각 교과에 관심이 다른 학생들 간에 학습 정보를 교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선수학습에서 부족했던 부분의 내용을 재학습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음 수업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선택교육과정으로 미술을 접할 수 없었던 학생들에게 미술의 시각적이고 조형적인 수업은 다양한 학습의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반면, 통합수업은 1차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술활동을 짧은 시간에 마무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학생들이 준비해온 이미지에 따라 결과물의 큰 차이점을 보여 준비가 미흡한 조의 사기가 낮아지기도 하였다. 이것은 국어시간에 이미지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미술교사의 피드백이 부족했던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두 교과 간의 간학문적 통합보다는 교과를 분리하여 미술활동의 시간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으며 통합의 차시를 2차시로 늘리는 방법도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지의 준비과정은 미술교사와 국어교사의 수업 전 협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팀티칭을 위한 충분한 계획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보완하면 형식적인 미술과의 통합이 아닌 완성도 있는 미술작품을 얻을 수 있어 통합수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화학습으로 차후에 학교 축제의 축제 포스터를 제작하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면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해지는 수업으로 통합교육의 호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2. 과학과 통합 지도의 실제

본 절은 미술과와 과학과의 통합교육의 실례로, 제 7차 교육과정의 교과 간 단원의 관련성을 분석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과와의 통합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적 교수-학습 지도 과정안을 구안하였다.

미술과와 과학과의 통합 수업은 A중학교 2학년 한 학급 28명을 대상으로 하여 본 수업을 실시하고 수업 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1) 미술과와 과학과의 통합의 의의와 단원분석

(1) 미술과와 과학과의 통합의 의의

15세기 서양미술화가들의 원근법과 해부학을 통한 미술의 표현은 미술과 과학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출발점이 되었다. 서양에서는 과학의 발달에 의해 시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미술이 등장했는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거의 없었던 농업국가인 동양에서는 서양과 같은 새로운 자극이 없었기 때문에 리얼리즘, 인상주의, 입체파, 미래주의, 추상미술 등과 같은 다양한 미술적 시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서양에서의 과학의 발달은 미술의 표현기법과 사상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과학의 영향으로 원근법에서 시작하여 카메라 옵스큐라와 광학을 통한 빛과 운동의 표현이 가능해지고, 형태의 구조와 속도, 그리고 사차원의 무의식의 세계까지 표현하는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술과 과학의 통합은 미술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과학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은 미술과와 과학과의 통합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과학을 바탕으로 한 미술의 통합방법은 “과학교육의 핵심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지식내용중심, 사회문제중심, 개인흥미중심 통합과학교육”⁴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식내용중심의 통합과학교육은 과학의 각 분야 간의 통합을 말하며, 사회문제중심의 통합과학교육은 과학관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

45) 손연아(2004), 「과학과 통합교육과정의 이해와 운영의 실제」, 경기도과학교육원, p.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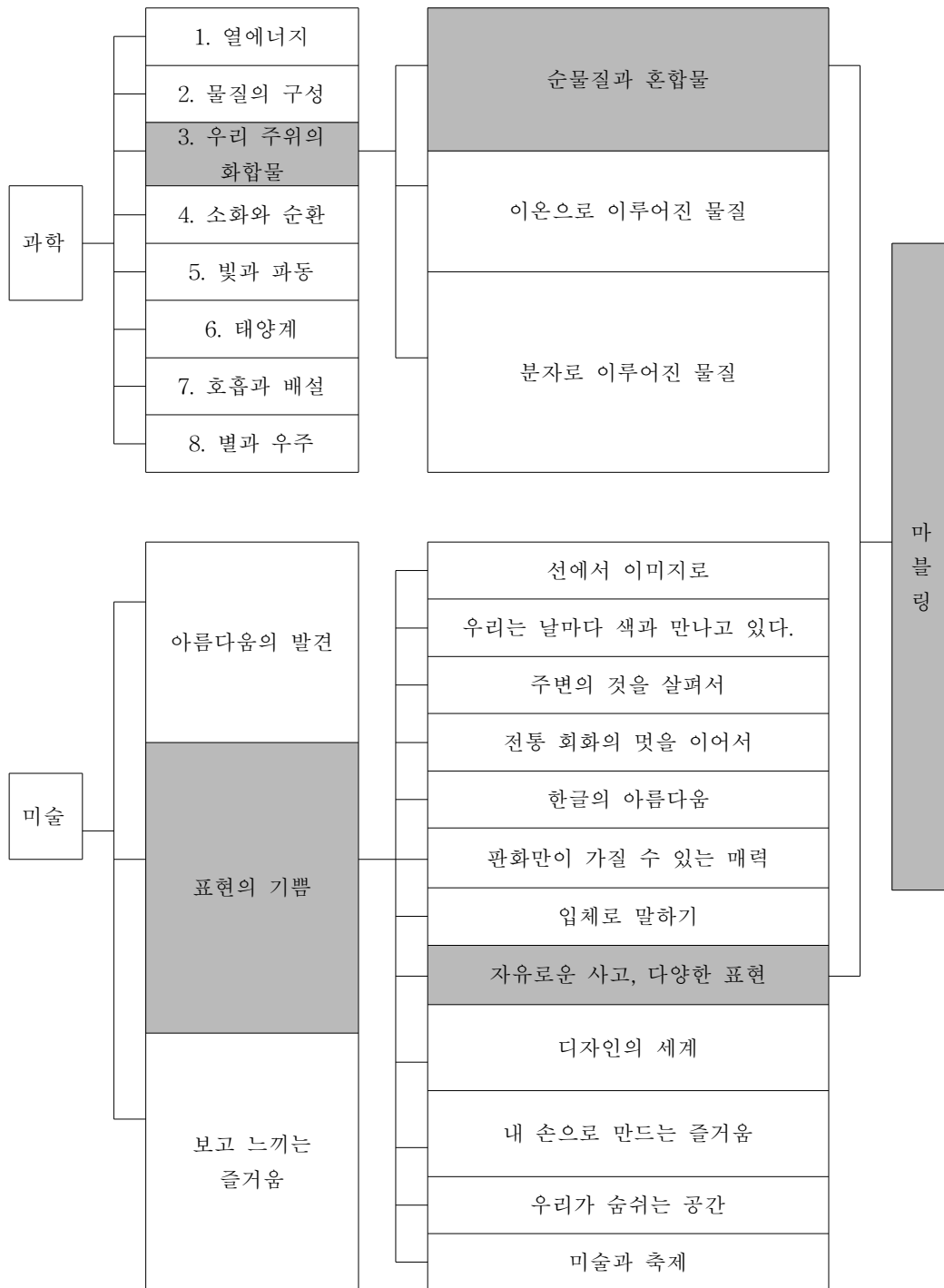
을 두는 통합과학교육을 의미한다. 반면에 개인흥미중심의 통합과학교육은 과학과 개인흥미의 통합으로, 교육의 초점을 개인의 흥미와 관심을 만족시키는데 두는 통합과학교육을 말한다. 이것은 학문의 개념 또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자유로운 표현활동이나 문제해결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흥미중심의 통합과학교육은 미술과 과학, 그리고 일상생활의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한 표현활동의 통합교육에 이론적 바탕이 된다.

미술과와 과학과는 실생활의 사물이나 자연의 관찰에서 시작한다는 것과 창의성을 신장시키는데 목적을 두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미술은 추상적이며 주관적인 사고를 갖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갖는 반면, 과학은 구체적인 사물이나 현상의 관찰과 조작 활동을 토대로 하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을 갖는다. 다시 말해 과학은 인간의 감정을 배제한 자신의 외적인 세계의 발견이라면 미술교과는 감정 중심에서 대상과 자신이 교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표현활동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 통합은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고른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미술표현활동은 공간적, 시각적 사고와 다양한 재료와 표현기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학에서 접하기 힘든 영역의 생산적이고 확산적 사고를 통해 창의성 계발에 도움을 준다. 또한 과학에서의 논리적, 탐구적 창의성의 한계를 벗어나 개성적이고 다양한 창의성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을 통하여 계발하는데 통합의 의의가 있다.

통합의 방법적인 면을 살펴보면, 과학의 원리가 반영된 미술 기법과 원리를 찾아 연관성을 이해시키고 이에 따른 미술활동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간단한 원근법의 원리에서부터 빛의 혼합, 물과 기름의 성질을 이용한 기법, 전류를 이용한 사진기법 등 다양한 과학의 원리를 미술에서 찾을 수 있다. 통합적 실험의 경우 일반적인 실험에 그치지보다는 미술교사와의 팀티칭으로 그와 연관된 미술 감상과 표현기법을 익히게 되어, 기존의 학습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이상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하는데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것이다.

(2) 미술과와 과학과의 통합적 단원 분석



<그림 11> 미술과와 과학과의 단원 분석

<그림 11>은 각 교과와 대 단원과 소 단원의 관련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본 수업에서는 미술 표현활동에 활용되는 재료의 특성과 과학과의 물질이라는 화학적 성질을 관련시켜 통합수업을 구안하였다.

미술교과는 특성상 다양한 재료를 필요로 하며 그 재료에 있어 제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미술표현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과학교과 또한 우리 주위의 모든 물질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교과적 성격을 갖고 있어 공통적으로 우리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과학은 실생활에서 혼합물을 찾아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고 순물질과 혼합물의 차이점을 다루는 ‘순물질과 혼합물’을 단원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술과의 ‘자유로운 사고, 다양한 표현’이라는 단원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이해할 수 있고 미술의 소질을 요구하지 않아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려운 과학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줄 수 있다.

다음의 <표 10>은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각 단원이 갖는 특성을 바탕으로 통합적 요소를 분석한 것이다.

<표 10> 미술과와 과학과의 통합적 단원 분석

과목	과학	미술
단원	순물질과 혼합물	자유로운 사고, 다양한 표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 사물 탐구의 경험을 제공하고 그 경험을 통해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탐구 능력과 과학적인 태도를 함양하여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과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도 각각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다. ▪ 입장을 바꾸어 보거나 생각을 뒤집어 보는 등 발상을 전환하여 표현하면 독특한 이미지의 작품을 얻을 수 있다.
통합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고를 통한 창의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소재로 삼고 있다. 	

<표 10>의 각 교과 단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과학교과와 경우 자연과 사물의 탐구경험을 통해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탐구 능력과 과학적인 태도를 함양하여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과이다. 그 중 ‘순물질과 혼합물’의 단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물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누어 보고 그 특성을 살펴보는 탐구과정을 통하여 혼합물을 분해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단원이다.

미술교과와 경우는 ‘자유로운 사고, 다양한 표현’의 단원을 선정하여, 각각의 다른 재료를 이용하여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독특한 이미지를 얻고 자신의 내면을 표면으로 이끌어내는 감정적인 표현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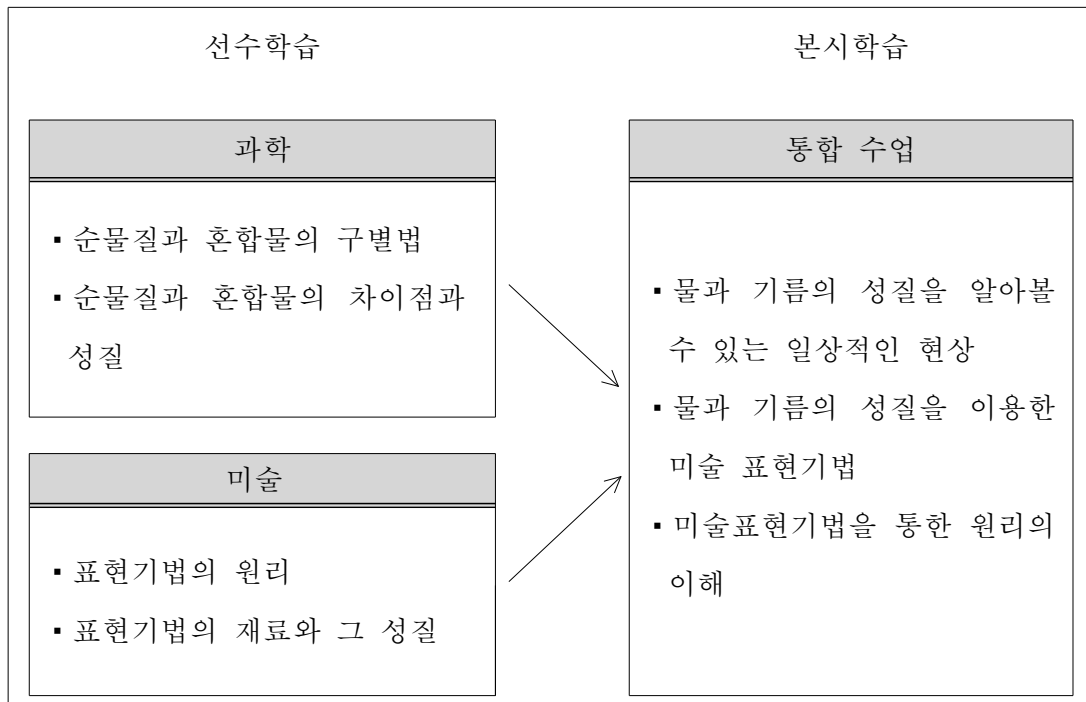
창의성의 신장을 공통된 목적으로 과학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미술은 감정적이고 틀이 없는 개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차이점이 있다. 두 교과 간의 차이점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보이며 창의성의 다양한 측면을 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창의성은 자기표현활동으로 저절로 계발되기 보다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을 통하여 신장되므로 미술과와 과학과의 통합수업은 창의성을 신장시키는데 효과적인 수업이 될 것이다.

다양한 표현 기법 중 통합 수업의 주제로 선정한 ‘마블링’은 즉흥적이고 우연의 효과를 내는 표현의 특징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물과 기름의 성질을 이용한 과학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마블링 현상은 비 오는 날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생활의 현상으로 과학과 미술을 연결시켜 쉽게 과학의 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를 도와 학습의 성취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며, 특별한 장비나 장소의 제약 없이 실습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미술과와 과학과의 통합 수업은 미술표현의 재료를 과학 실험의 요소로 이용하여 학생들이 낯설고 어려워하는 재료를 이용한 실험보다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묘사와 같은 형식적인 미술수업에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미술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줄 수 있다. 또한 과학의 원리를 활용한 미술기법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미술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접하는 계기가 된다.

2) 수업지도안

본 수업은 <그림 12>와 같이 선수학습은 미술과와 과학과의 개별 수업으로 각각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팀티칭을 활용한 통합수업을 본시 수업으로 진행한다.



<그림 12> 미술과와 과학과의 통합적 교수-학습 계획

본시 학습에 앞서 선수학습을 통하여 과학과는 우리 주위의 물질들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별하는 방법과 그 차이점, 성질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그리고 미술과는 데칼코마니, 마블링, 액션 페인팅, 프로타주, 콜라주 등과 같은 다양한 표현기법에 활용된 원리와 표현기법 마다 사용되는 재료의 성질에 대하여 학습하게 된다.

본시 수업은 45분 동안 이루어지며 도입단계에서 과학과의 내용정리를 통한 전시 학습의 확인이 이루어지며 본시 학습 목표와 주제를 제시한다.

전개 단계는 학습내용의 제시와 마블링 실습, 그리고 정리로 나누어진다.

학습내용의 제시단계는 과학교사가 물과 기름의 성질을 알아볼 수 있는 일상적인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며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나누어준다.

학습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과 기름을 하나의 컵에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2. 기름이 물 위에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우리 주위에서 물과 기름의 성질을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4. 분리되어 있는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려면 무엇을 넣어야 할 까요?

위의 질문들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수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1. 의 질문은 물 컵에 기름을 넣어본 적이 있는지, 혹은 물이 있는 후라이팬에 음식을 하기 위해 기름을 넣어 본 적이 있는지 등의 일상적 경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2. 의 질문은 과학의 전시학습에서 학습한 내용과 1.의 질문을 관련시켜 물과 기름의 과학적 성질에 대해 상기시킨다.

3. 의 질문은 2.의 원리를 이용한 현상이나 제품에 대해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무지갯빛의 현상이나 미술의 마블링 기법, 마요네즈의 분리방법, 핸드크림의 유분 등이 있다.

4. 의 질문은 이러한 물과 기름의 상반된 성질을 모두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 주위에서 찾을 수 있는 주방용 세제, 폼 클렌징, 비누에 들어 있는 계면활성제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발문 과정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과학, 미술의 연결 고리를 형성시켜 학생들의 확산적, 생산적 사고를 유도하기에 적절하며 학생들이 ‘마블링’을 단순히 미술 기법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과학의 원리를 이용한 미술기법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마블링 실습 단계에서는 미술교사의 진행으로 이뤄지며 마블링에 대한 기법적 설명과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순회 지도를 통한 개별지도로 하게 된다.

마블링의 예시작과 함께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이때 유의사항에는 ‘첫째, 많은 양의 물감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둘째, 많은 색상의 물감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셋째, 너무 많이 젖지 않는다.’ 의 3 가지를 들 수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마블링 기법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학생들에게 실패로 인한 좌절감을 줄여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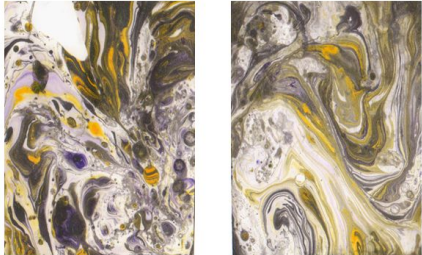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전개 단계의 정리는 과학교사가 중심이 되며,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이유와 기름이 물 위에 떠있는 이유에 대한 재학습을 하고 이를 섞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된다. 이때 세제의 역할, 그리고 세제의 성질에 대하여 설명하고 마블링 실습도구를 세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마블링 물감이 들어 있는 통에 세제를 넣어 물감이 세제에 섞이는 현상을 보고 세제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수업 후 마블링 실습을 통하여 수업 전과 비교하여 무엇이 달라졌는지 학습지를 작성하고 건조된 작품을 붙일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학습지 내용은 수업 전의 일상적인 현상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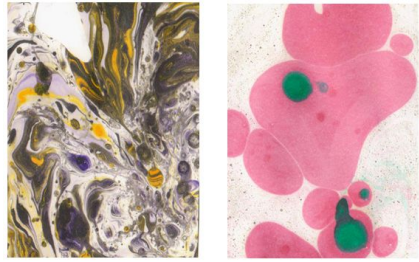
정리 단계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평가지를 작성하고 자리를 정리하며 교사는 수업에 있어 전체적인 조언과 함께 차시예고를 하고 마무리 하게 된다.

마블링 실습의 경우 실습시간이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으로 실수를 줄여주고 적절한 시간조절로 학습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블링 물감의 경우 기름 성분이 많아 건조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건조의 공간을 미리 확보하여 학생 작품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마블링’ 기법을 주제로 한 통합 수업은 과학의 원리를 일상적인 현상과 미술의 기법을 통하여 학습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현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고 흥미를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어려운 과학의 원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어 다음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또한 정형화된 미술에 소질이 없어 자신의 표현에 소심한 학생들에게 우연의 효과를 통한 자유로운 표현은 미술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자신의 내면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표 11> 미술과와 과학과의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물질의 비중을 이용한 ‘마블링’ 기법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블링기법을 이용한 작품을 만들고 설명할 수 있다. 마블링의 특징과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준비물		교과서, 종이, 마블링 물감, 세제, 나무젓가락, 그릇, 물		
학습 단계	학습과정	학습 활동		시간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및 출석점검 전시학습 내용확인 학습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출석 점검 전 시간에 배운 과학수업에 관하여 질문한다.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른 자세로 인사한다. 큰 소리로 대답한다. 질문에 대답하고 지난 시간 내용을 상기한다. 제시된 학습목표를 숙지한다. 	5
전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내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과 기름의 성질에 대하여 설명한다.-학습지 제시 물과 기름의 성질을 이용한 미술 기법에 대한 질문을 하고 마블링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며 설명한다. <p>ppt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을 경청하고 학습지를 작성한다. 바른 자세로 설명을 듣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의사항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블링의 예시작품을 들어 실습시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의사항을 주의 깊게 듣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 ▪ 과학과 내용 정리 	<p>ppt2</p>  <p>ppt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블링 실습을 지도한다. ▪ 마블링 기법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의 성질(극성과 비극성) - 비중의 차이 ▪ 실습 후 작품을 건조하도록 하고 정리정돈의 설명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의 사용과 역할 - 계면활성제의 성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사항을 상기하며 실습한다. ▪ 설명을 경청한다. ▪ 설명을 듣고 실험을 한다. 물감이 들어있는 통에 세제를 넣어 현상을 관찰하고 정리한다. -학습지 작성 	35
정리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 정리정돈 ▪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를 작성하여 개인별 자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준비물을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 차시예고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를 작성한다. ▪ 준비물을 정리한다. ▪ 경청한다. 	45

<표 12> 미술과와 과학과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평가 관점	평가방법
1. 물과 기름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는가? 2. 물과 기름의 성질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3. 마블링 기법의 특성이 잘 나타났는가? 4. 마블링을 주의사항에 유의하며 실습에 임하였는가? 5. 올바른 방법으로 정리 정돈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평가 (평가지 작성) ▪ 학습지

평가는 교사의 평가와 학생 개인의 자기평가로 이루어진다. 교사의 평가는 학습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수업 중 작성하는 학습지와 발문을 통해 <표 12>의 항목이 잘 되었는지 평가를 한다. 이때 교사의 평가는 결과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평가이므로 수업 중 개별적인 발문을 통하거나 현장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하다. 학생들의 자기평가의 경우는, 평가항목은 교사의 평가항목과 동일하며 단 자신의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표 12>과 같이 총 5개의 항목이며, 이 중 1번 문항은 과학과의 성격을 갖으며 2,3,4번 문항은 미술과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1번 문항은 인지적 영역, 2, 3번은 심동적 영역, 4, 5번 문항은 정의적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영역은 지식, 이해, 적용의 배운 내용의 기억, 의미 파악,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심동적 영역은 창의성, 표현력, 실용성, 심미성 등의 능력을 평가한다. 그리고 정의적 영역은 표현 태도 즉, 준비성, 성실성, 자신감, 제작 태도 등을 평가하여 세 영역을 고루 갖추는 전인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통합수업의 평가결과는 교과 성적에 반영하기 보다는 과정의 평가로 수업에 대한 학생 자신의 피드백으로 활용되고 교사는 결과를 수업 개선을 위한 자료, 교육 계획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며 학생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학습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합수업의 평가는 과정을 반영하는 결과물의 변화를 통하여 학생 자신의 성장을 발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다.

<표 13>은 교수-학습 과정안 안에서 활용된 예시자료의 설명내용이다.

<표 13> 미술과와 과학과 통합수업의 PPT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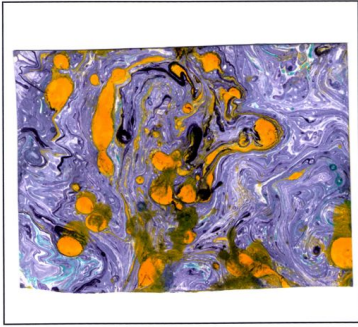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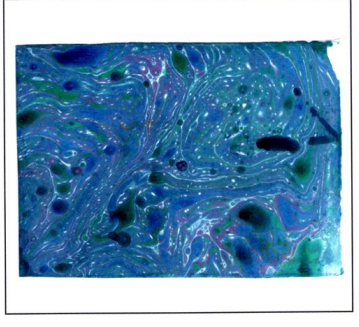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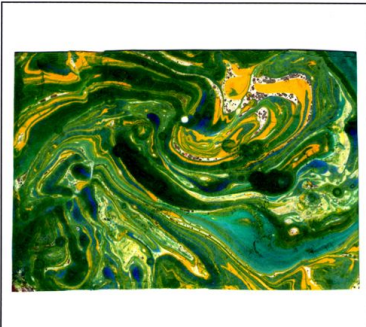

자료 번호	자료	자료설명
ppt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블링 예시 -마블링은 물과 기름의 성질을 이용하여 물 위에 떠있는 물감을 종이로 찍어내어 우연적이고 즉흥적인 효과를 내는 기법이다.
ppt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하여 찍었을 경우 -마블링은 반복하여 작품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반복하였을 경우 색이 흐려진다는 단점이 있다.
ppt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블링 물감을 물 위에 떨어뜨린 후 나무젓가락으로 저어준 경우와 젓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볼 수 있다.

3) 결과 분석

중학교 2학년 28명을 대상으로 미술과 과학과의 통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상 학생의 경우 과학과 미술을 일상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아 과학과 미술에 대한 선수학습이 잘 되어 있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수월하였으며 학생들의 자기 평가에 좀 더 비판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어 학생 스스로 만족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14>는 전개단계에서 실시한 학습지의 내용으로 수업의 전·후의 변화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블링작품을 건조 후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4> 「마블링 기법」의 학생작품

<p>■ 수업 후에 무엇이 달라졌나요.</p> <p>이제까지 미술수업을 통해 물과 기름에 대해 공부했었습니다. 수업 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과 기름을 하나의 컵에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죠. 이런 현상을 이용한 미술기법은 무엇인가요? 마블링 • 물과 기름이 섞이게 하려면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계면활성제 • 작품을 붙여주세요. 	<p>■ 수업 후에 무엇이 달라졌나요.</p> <p>이제까지 미술수업을 통해 물과 기름에 대해 공부했었습니다. 수업 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과 기름을 하나의 컵에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죠. 이런 현상을 이용한 미술기법은 무엇인가요? 마블링 • 물과 기름이 섞이게 하려면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계면활성제 • 작품을 붙여주세요. 
<p>■ 수업 후에 무엇이 달라졌나요.</p> <p>이제까지 미술수업을 통해 물과 기름에 대해 공부했었습니다. 수업 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과 기름을 하나의 컵에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죠. 이런 현상을 이용한 미술기법은 무엇인가요? 마블링 • 물과 기름이 섞이게 하려면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계면활성제 • 작품을 붙여주세요. 	<p>■ 수업 후에 무엇이 달라졌나요.</p> <p>이제까지 미술수업을 통해 물과 기름에 대해 공부했었습니다. 수업 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과 기름을 하나의 컵에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죠. 이런 현상을 이용한 미술기법은 무엇인가요? 마블링 • 물과 기름이 섞이게 하려면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계면활성제 • 작품을 붙여주세요. 

수업 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표 15>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15> 미술과와 과학과 통합수업의 설문 결과

문항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합계
▪ 미술기법을 이해하는데 마블링 실습이 도움이 되었나요?	26 (92.9%)	2 (7.1%)	0	28
▪ 마블링 실습이 물과 기름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24 (85.7%)	4 (14.3%)	0	28
▪ 이 외에도 과학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미술수업이 도움이 될까요?	23 (82.1%)	5 (17.9%)	0	28
▪ 미술수업을 같이 하면 어려운 문제에 흥미를 갖는데 도움이 될까요?	24 (85.7%)	4 (14.3%)	0	28

‘미술기법을 이해하는데 마블링 실습이 도움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26명(92.9%)의 학생이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2명(7.1%)의 학생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블링의 즉흥적이고 우연적인 효과를 직접 실습할 수 있어 미술기법에 대한 이해가 쉽다고 하였고 과학과 미술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어 기법을 응용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다만 한정된 시간으로 다양한 기법을 다룰 수 없어 아쉬웠다.

‘마블링 실습이 물과 기름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는 24명(85.7%)의 학생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4명(14.3%)의 학생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과학시간에 배운 비중에 대해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굳이 실습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과학에 성취도가 낮을 수록 실습을 통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것은 언어에 의한 추상적 설명보다 직접적 경험이 학생의 인지구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과학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미술수업이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는 23명(82.1%)의 학생이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고 5명(17.9%)의 학생은 ‘보통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이번 수업을 계기로 과학시간에 학습한 내용과 미술과의 연관이 있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더 많은 단원에서 통합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수업 형식이 매우 새로워서 수업에 집중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미술을 통한 과학의 이야기에 미술을 더 깊이 있는 과목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과학의 발달은 미술의 표현기법에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로서 미술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과학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마블링 외에 다른 과학의 원리와 관련된 미술기법은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미술수업을 같이 하면 어려운 문제에 흥미를 갖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 24명(85.7%)의 학생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고 4명(14.3%)의 학생은 ‘보통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과학실험을 통하여 원리의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표현활동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 동기유발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동기유발은 어려운 문제를 접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하고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미술에 자신감을 갖는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15>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미술과와 과학과의 통합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과학시간의 실험에 대한 흥미를 증가시키고 원리의 이해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표현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신감과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었다.

중학교 과학의 경우 실생활과 연관된 탐구학습으로 교과서가 제작되었으나 실제 수업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기에는 시간과 장비, 장소의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미술표현활동을 통합한 과학 수업은 과학적 장비나 별도의 장소 없이 효과적으로 과학의 원리를 실험할 수 있었고 1회의 수업이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른 과학의 원리와 미술과의 관계를 찾는데 관심을 보여 다음 수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다양한 표현기법 중 한 가지만을 주제로 통합수업이 이루어져 수업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마블링 실습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의 완성도

가 부족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각 조별로 다른 표현기법을 과학과 통합하는 방법이 있으며 마블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마블링 실습작을 조합하여 교실 벽에 장식하는 방법과 심화학습으로 마블링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색점토의 혼합이나 색끈을 이용하여 실용품을 제작하는 수업을 구안할 수 있다.

미술은 과학과 함께 발전하였으며 과학의 원리를 통한 미술기법의 연구는 새로운 표현 기법을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미술과와 과학과의 통합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미술 개념의 폭 넓은 이해로 미술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IV. 결론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은 몇 차례의 교육개혁을 거치면서 정규교육과정에서 그 비중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예술교과로서의 위상도 실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표현중심의 실기수업과 입시위주의 미술수업 형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적 문제의 해답은 통합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술과의 통합교육은 단편적인 실기 중심의 미술 수업을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시킴으로써 전인교육이라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미술과와 타 교과의 통합적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방법으로, 통합교육과 미술교육의 개념과 목적, 필요성 등을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술과와 타 교과의 통합교육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미술과의 통합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주지교과와 미술의 표현활동의 통합수업은 학생들의 인지형성에 도움을 주어 학습 성취도를 높일 수 있으며 생산적이고 확산적 사고를 신장시켜 학교 수업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관계성 및 적응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기표현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자아개념을 형성시켜 주며, 타 교과에서의 경쟁적 관계를 완화시켜주고 비판적인 시각과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통합은 전인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교육적 기대효과를 바탕으로 미술표현활동을 반영한 미술과와 국어과, 미술과와 과학과의 통합교육에 대한 수업 지도안을 구안하였으며, 국어과의 통합은 미술을 선택하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8명, 과학과의 통합은 중학교 2학년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현이라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합한 수업은 어려운 원리나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 성취도의 향상을 가져왔다. 그리고 미술기법과 과학원리의 관계를 통해 미술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깨닫고 다양한 미술기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둘째,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해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의 강박감에서 벗어나 학생들 간의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조별활동은 각각 다른 교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간에 학습정보를 교환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셋째, 주지교과에 자신감을 잃은 학생들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고 정형화되지 않은 수업은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는 학생들이 자기표현활동을 하는데 기회와 용기를 줄 수 있었다.

넷째, 경쟁이 완화된 분위기에서 다른 학생들의 작품 감상을 통해 다른 학생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반면 이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났다. 팀티칭을 활용한 통합수업은 다양한 수업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많은 기자재와 충분한 수업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나 교육환경이 뒷받침되기 힘들었으며, 특정교과에서만 통합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각각의 수업에 적응하는데 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교과 간의 통합수업을 확대하고 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수와 세미나를 통하여 지식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술기반 통합교육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 학교의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통합수업을 장려하는 교육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술과와 타 교과의 통합교육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주지교과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전인적 교육을 실현하고 다원화된 지식 기반 사회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 행 본>

- 고경화(2003), 「예술교육의 역사와 이론」, 학지사
- 김동철(2006), 「N세대의 미술교육」, 집문당
- 김용식(2002),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 학지사
- 김재복(1979), 「미술과의 수업과 평가」, 일진사
- 김재복(2000), 「통합교육과정」, 교육과학사
- 김춘일(1986), 「미술교육론」, 흥성사
- 박준식(2001), 「교수-학습의 이론적 탐색」, 원미사
- 박휘락(2003),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주)시공사
- 백영균 외 7인(2003), 「유비쿼터스 시대의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학지사
- 손연아(2004), 「과학과 통합교육과정의 이해와 운영의 실제」, 경기도과학교육원
- 안효일(2009), 「Polanyi의 통합교육과정 이론」, 원미사
- 오만록(2010), 「교육과정론」, 동문사
- 유광찬, 이영준(2005), 「통합교과 교육」, 교육과학사
- 유봉호(1993), 「現代教育課程」, 교학연구사
- 이경섭(1999), 「교육 과정 쟁점 연구」, 교육과학사
- 이경섭 외 2인(1994), 「교과 통합의 연구」, 교육과학사
- 이규선 외 5인(2000),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 임정기 외 2인(2006)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 전성수(2006), 「교과교육학 & 미술교육학」, 한국학술정보(주)
- 조영순 외 2인(2008), 「창의성 교육」,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진영은(2003), 「교육과정-이론과 실제」, 학지사
- 한국교육과정학회(2002),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2003), 「미술교육 이론의 탐색」, 예경
- 한국미술교육학회(2003),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 학지사

James B. Ingram(1995), 배진수, 이영만 역, 「교육과정 통합과 평생교육」,
학지사

레베카 크로우포드 번스(2001), 김대현 외 역음, 「교과 경계선 허물기」, 학지사
로웬펠드, 브리테인 (1993),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S.M.Drake(2009), 박영무, 허영식, 유제순 공역, 「교육과정 통합의 기초」, 교육
과학사

<논문>

민혜림(2009), “사회과 통합교육과정 연구 : (고등학교)교과서 분석 중심”, 석사
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양유나(2010), “다문화시대의 전통문화 미술교육방안 : 초등학생 중심으로”, 석
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오정숙(2007), “마인드 맵을 활용한 미술과와 국어과의 통합지도 연구”, 석사학
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장지영(2008), “미술과와 타 교과의 통합교육 방안의 연구 : 프로젝트 학습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홍성혁(2008), “미적체험을 통한 통합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
학교 교육대학원

<기타문헌>

교육부(1998),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김용주 외 3인, 「중학교 미술」, (주)지학사

김정희 외 2인, 「고등학교 미술」, 교학연구사

박희송 외 15인, 「중학교 과학 2」, (주)교학사

조남현 외 7인, 「고등학교 국어 (상)」, (주)교학사

<Abstract>

Integrated Instruction Plan of Art Activity on Art Education

Bo-kyoung Moon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jor of Fine Art
Education

Adviser Prof. Dong-eon Kang

Although we are living in the rapidly changing modern times which is accumulating knowledge and is getting departmentalized and specialized, we have too complicated problems such as racial discrimination, environmental problem to solve with scholarly knowledge. Accordingly, we need diversity of textbooks, so that the integrated curriculum came to the fore. In the field of education, even though a curriculum subject combined to another subject, it is not invigorating because of the institutional problems and the education system that focuses only on college entrance exams.

In the modern society, it shows signs of reduction of art education progressively in the educational policies because of stereotyped education system and simple practical art education. In order to cope with a situation, we need new integrative education system. Also we should reflect the changes of society on the system of art education and improve problem solving skills. We should put in a great deal of effort to provide education for the whole man.

This study presents the necessity of art education and concept of integrative education through the 7th curriculum and references. It presents

expected effectiveness about integrative education and art education as well.

1. help development of cognitive structure to understand lecture.
2. improve problem solving skills through creativity.
3. build the right self-worth through self-expression.
4. improve the spirit of team work and attitude to respect other people.
5. practice culture education through appreciating art.

In order to achieve those effects, it presents new way of integrative education between a subject of art and a subject of Korean, between a subject of art and a subject of science. In case of the integrative education between a subject of art and a subject of Korean, we implemented integrative education with 28 first-grade students at the S high school which doesn't select a subject of art. In case of the integrative education between a subject of art and a subject of science, we implemented integrative education with 28 second-grade students at the A middle school. we can obtain the result of followings.

First, the education with activity of art made students interested and helped them understand the class compared to cramming method of teaching. It induced them participate in class.

Second, it was able to provide abundant experience and various knowledge. Moreover, it leded positive results such as expectation of the next class.

Third, the needy students who had poor score on main subjects smartened up and a team work with no assessment made them help each other.

Fourth, it helped to feel a sense of closeness and improve problem solving skill through subject liked to main subjects and real life.

We can provide education for the whole man that satisfies both cognitive aspect of education and emotional aspect through these course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new integrative education about a subject of art with art as the center. It also emphasizes the necessary of integrated curriculum, so that there will be climate of school education which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